



저축銀 중앙회장 박재식 선출...규제 해결사 기대 8



김정태 회장 “데스밸리 구간 기업 지원 늘려야” 19

코스피(21일)	2124.61 (+0.33P)	코스닥	695.62 (-0.72P)
환율(달러당 원화)	1128.10 (+6.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21% (+0.007%p)

‘스톡옵션’ 행사 기업 지난해 30% 늘었다

2017년 82개사서 104곳으로
신주 발행 2056만株 26% 증가
파미셀 1년새 5982%나 늘어
“우수인재 확보·성과중심 문화 탓”

책꽂이로 불리는 스톡옵션 행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 중심의 기업 문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한 기업 수는 2017년 82개사에서 이듬해 104곳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행사 건수 역시 181개에서 209건으로 증가했다.

▶관련기사 3면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다. 가령 주식 10주를 일년 뒤 만 원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으면, 회사 주가가 2만 원으로 오를 때 권리를 행

사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지난해 스톡옵션 행사로 신규 발행된 신주는 2056만3221주로 전년(1626만8778주)보다 26.4% 증가했다. 임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수에 해당한다.

발행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파미셀로 일년간 155만840주가 추가 상장됐다. 이는 전년 대비 5982% 증가한 수치다. 2위는 셀트리온으로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이 2017년 6만2023주에서 지난해 34만7756주로 461% 늘었다. 셀트리온제약(353%), 카카오(28%), 미원상사(21%) 등도 규모가 커졌다. 이들은 모두 2년 연속 스톡옵션을 행사한 기업이다.

김수옥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최근 기업 문화가 바뀌면서 스톡옵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아졌다”며 “회사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2021년 광화문 새 광장시대가 열린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미래상’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7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당선작은 ‘깊은 표면(Deep Surface):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로, CA조경과 김영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부교수, ㈜유신, ㈜선인터라인 건축이 공동 설계했다.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가 광장으로 편입돼 광장 규모가 3.7배로 넓어지고, 해치마당 등 세 곳으로 나뉘어 있던 지하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설계안이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974년의 광화문과 현재의 광화문 전경. 설계 공모 당선작 ‘Deep Surface’.

▶관련기사 17면

“韓, 생계형 창업 줄고 기회형 늘어”

자영업자로 내몰리는데 창업 생태계 개선됐다고?

2018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 결과

국내에 새로 생기는 기업 유형이 ‘생계형 창업’보다 ‘기회형 창업’ 비중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창업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고용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본부의 평가다.

21일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가 발표한 ‘2018년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기회형 창업은 전년 대비 2.9%p 상승한 67.1%로, 조사에 참여한 49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4계단이나 상승한 수치다. 반면 생계형 창업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21.0%를 기록, 전체 국가 중 27위로 4계단 떨어졌다.

생계형 창업은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택하는 것이고 기회형 창업은 고소득을 올릴 사업 기회를 노려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창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다. △직업 선택 시 창업 선호(53.0%→5.8%p 상승)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사회인식(70.0%→1.4%p 상승) △언론의 창업관심도(67.1%→6.6%p 상승) 등이다. 다만 창업에 대한 인지 조사 결과 ‘실패의 두려움’(32.8%→0.6%p 상승)이 커졌다. 이현주 중소기업부 창업정책총

기회형 창업 vs 생계형 창업
(단위: %, 조사대상: 49개국)

	개선된 기회형 창업		생계형 창업	
	비중	순위	비중	순위
2016년	65.7	9위	23.9	30위
2017년	64.2	8위	22	23위
2018년	67.1	4위	21	27위

※출처: 중소기업본부

괄과장은 “2017년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발표를 계기로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과 민간 창업붐에 힘입어 창업생태계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 연구 결과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창업의 대부분이 조기 퇴직과 기대수명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몰린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회형 창업’이 아니라 ‘생계형 창업’으로 봐야 적절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 대상 중 창업과 직장 잔류를 두고 고민을 시작하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실어준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35세 이상 비중은 약 68%였다. 한 중소기업 전문가는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단순히 숫자가 개선됐다고 국내 창업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방증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형’ 상반기 발표

재무상태보다 사회적 가치에 비중 둔다

일반형·협동조합형 나눠 평가
올해 2400억 자금 지원 방침

정부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평가모형’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확정 발표한다. 대출·보증·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보다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지표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24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8면

21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형’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일반형과 협동조합형, 크게 2가지로 나누어 평가한다. 우선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부합성을 본 뒤 금융 지원을 위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형을 위해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다.

일반 사회적 기업의 경우 △기업 철학(사회적 가치, 사업계획 적정성, 경영자 마인드) △참여·배려·연대(의사결정 적정성, 구성원 처우 노력, 외부 기관 협력) △사회 가치 지향(제품·서비스의 사회적 지향, 환

경 보존 노력) △사회 회원(기업 운영을 통한 사회 회원 노력) 등 크게 4가지로 부합성을 평가한다. 1차 평가를 통과하면 실제 이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해도 될지 사업 경쟁력을 평가한다. 2차 평가 요소는 △경영 역량(대표자 역량) △교육(법정·직무교육 노력) △운영 활동(제품·서비스 경쟁력, 판매·홍보 활동 적정성) △재무상태(매출액 증가율·매출총이익률·영업이익증가율·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배율) 등 4가지다. 특히 재무상태 지표를 줄이고 단순화했다.

▶8면에 계속 이새하 기자 shys0536@ 김보름 기자 fullmoon@

연초부터 수출 비상...반도체 29% 급락

올들어 수출액 14.6% 감소
정부 “민관합동 총력 지원”

연초부터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급감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한 257억 달러에 그쳤다.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탓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단일 품목 1000억 달러 수출 돌파를 달성한 반도체는 28.8% 감

소한 42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석유제품(-24.0%)과 선박(-40.5%)도 각각 18억 2000만 달러, 10억5000만 달러로 부진했다.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9%에 달하는 반도체의 수출이 2개월 연속 급감해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우리의 수출 1위 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22.5% 감소한 66억7000만 달러에 그쳤다.

연초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민관은 이날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

회는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했으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민관 합동 수출총상대응반도가 동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에)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며 “정부도 단기 수출 활력 회복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 장관은 “수출업계에 새로운 수출 아이템 발굴과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20일 수입은 9.5% 감소한 273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바이오시밀러〉

삼성에피스-셀트리온, 美 유방암치료제 시장 쟁탈전

국내 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방암 치료제 '온트루잔트(성분명 트라스트주맙)'가 미국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3조 원 규모의 시장 선점을 위해 양사가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온트루잔트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2017년 12월 FDA가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서(BLA) 검토에 착수한 지 13개월 만이다.

온트루잔트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는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허셉틴은 초기 유방암, 전이성 유방암 및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약 8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판매 5위 블록버스터다. 이중 미국 시장 규모만 3조 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시밀러는 마일란-바이오콘



온트루잔트·허쥬마 비교

구분	온트루잔트	허쥬마
개발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미국 판매허가 시기	2019년 1월	2018년 12월
성분명	트라스트주맙	트라스투주맙
오리지널 의약품	허셉틴	허셉틴
적응증	유방암	유방암

허셉틴 시장 규모

(단위 : 원, 2017년 기준)



사 제넨텍과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넨텍은 지난해 9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이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출시 시기는 제품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온트루잔트를 최선의 시기에 발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허셉틴 시장은 국내 업체들의 경쟁을 포함해 시간이 흐를수록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2017년 12월 가장 먼저 FDA 허가를 받은 마일란-바이오콘은 일찌감치 로슈와 허셉틴 관련 라이선스 제휴 계약을 맺고 오기브리의 발매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다국적 제약사 암젠-엘리간의 '칸진티'와 화이자의 '트라지메라'도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리지널 '허셉틴' 특허 6월 만료
업계, 3조 시장 선점 각축전 예고

삼성 '온트루잔트' FDA 판매 허가
제넨텍 특허침해 소송전 변수로

특허합의 등 한발 앞선 셀트리온
하반기 '허쥬마' 출시 유력

의 '오기브리', 셀트리온의 '허쥬마'에 이어 세 번째로 FDA의 허가를 받았다. 온트루잔트는 2017년 11월 세계 최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로 유럽에서 퍼스트무버 지위를 획득했지만, 미국에서는 허가 심사가 연기되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미국 시장에서 오리지널 허셉틴의 물질 특허는 6월 만료된다. 업계는 해당 업체들이 6월 이후 앞다퉈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서는 FDA 허가를 먼저 받은 셀트

리온의 허쥬마가 온트루잔트보다 다소 앞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로슈와 허쥬마 관련 특허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이다. 허쥬마의 마케팅 파트너사 테바 측은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허쥬마와 트루스마의 제품 출시일 등에 대해 오리지널사와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셀트리온은 허쥬마의 정확한 미국 출시 시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하반기 출시가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로슈의 계열

“슈퍼리치 26명, 세계인구 50%의 재산 보유”

옥스팜 '공익·개인의 부' 보고서... 새 억만장자 이들에 한 명 탄생·매일 2.8조씩 늘어

세계적으로 부(富)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와중에도 부자들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재단인 옥스팜은 21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익 또는 개인의 부?' 보고서에서 2018년 3월까지 1년간 전 세계 억만장자 2200여 명의 재산이 약 9000억 달러 증가했다며 이는 하루 25억 달러(약 2조8000억 원)씩 늘어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슈퍼리치 재산은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반면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8억 명 극빈층의 재산은 11% 줄어 들었다.

옥스팜은 2013년 이후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부의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22~25일 열린다.

올해 통계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2017년 3월 18일~2018년 3월 17일 전 세계 부자 변동 상황을 집계한 '포브스 억만장자 리스트'를 근거로 산출됐으며, 크레디트스위스가 매년 여름 펴내는 '부자 보고서'를 참고로 했다.

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25명에서 지난해 2208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1년간은 165명

늘어 이들에 한 번꼴로 억만장자가 새로 탄생했다.

옥스팜은 지난해 전 세계 최상위 부자 26명의 재산이 38억 극빈층 재산(약 1조3700억 달러)과 맞먹었다며 2017년에 슈퍼리치 43명의 재산이 극빈층 재산과 비슷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부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부호인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 재산은 지난해 1120억 달러로 늘어났는데 그의 재산 중 단 1%가 1억500만 인구의 에티오피아 전체 의료 예산과 필적한다고 꼬집었다.

옥스팜은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할 방

공익이나 개인의 부?

매일 25억 달러 증가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는 지난 한 해 동안 9000억 달러 증가.

최상위 부유층 1% 재산에 0.5%의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한다면?

현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2억6200만 명 아이들을 교육 가능.

330만 명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극빈층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주로 증가하였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하, 즉 34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빈곤선인

하루 5.5달러로 생활.

13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과 의료에 대한 지출 확대는 전체 불평등 감소 사유의 69%를 차지한다.

법으로 부자 증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율은 낮추고 조세회피 단속도 제대로 못해 공공 서비스 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에서 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970년의 62%에서 2013년 38%로 낮아졌다. 반면 빈곤국은 그 세율이 현재 28%에 그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부과가 소비에 집중되면서 빈곤층이 부자보다 더 높은 세

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지난해 극빈층 10%의 소득 대비 세율이 32%로, 상위 10% 부자 세율 21%보다 높았다.

옥스팜은 "1년간 전 세계 상위 1% 부자 재산에 0.5%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2억6200만 어린이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330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성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최대수익률 1982%... “제약·IT기업 다닐 맛 나네요”

스톡옵션 행사 기업 급증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스톡옵션 행사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스톡옵션을 행사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26% 늘었다. 2017년에는 23개사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9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셀트리온, 우리들제약, 파미셀을 제외한 26개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스톡옵션 행사 건수 역시 같은 기간 65개사에서 84곳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 제약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은 지난해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 34만7756주를 교부했다. 행사 가격은 3만8643원, 6만805원 등이다. 행사 당일(5월 15일) 기준 종가가 26만8000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수익률은 341%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9월에 2만3500주(발행가액 1만3707원), 12월에 4만6875주(1만3540원)를 신규 발행했다. 행사 당일 평가차익은 12억1453만 원으로 3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제약·바이오사, 23곳→29곳 늘어
셀트리온·티슈진 등 3년 연속 행사
카카오·넷마블 등 IT업종도 약진

증권가는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스톡옵션 행사가 활발한 것에 대해 업종 특성을 꼽았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1일 “신약을 개발 중인 회사는 R&D(연구개발)로 인해 실적은 적자”라며 “그러나 결과에 따라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넷마블, 더블유게임즈, 카카오, 스튜디오드래곤 등 IT 업종도 약진했다. 2017년 6개사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은 10곳으로 늘었다. 넷마블은 지난해 11차례에 걸쳐 23만9480주가 행사됐다. 당일 기준 종가와 비교하면 약 392%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더블유게임즈의 박신정 부사장은 지난해 상반기 스톡옵션 행사로 225억6000만 원을 벌었다. 특히 더블유게임즈의 미국 소셜카지노 업체 인수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역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게임과 같은 IT 및 미디어 업종은 신작 출시에 따른

종목명	2017년	2018년		
CJ제일제당	14,850	5,300		
더블유게임즈	127,386	87,022		
파미셀	25,500	1,550,840		
셀트리온	62,023	347,756		
셀트리온헬스케어	650,303	5,000		
셀트리온제약	21,412	96,894		
미원상사	3,938	4,752		
인터파크	10,500	7,000		
차바이오텍	48,310	10,400		
카카오	77,400	99,376		
제이준코스메틱	220,790	40,960		
넷마블	296,385	239,480		
행사일	종목	행사가	당일 종가	발행주식수(주)
5월 11일	카카오	17,313	117,000	6,600
15일	셀트리온	60,805	268,000	287,526
6월 12일	제이준코스메틱	4,187	22,700	7,016
7월 20일	파미셀	4,069	14,850	100,000
10월 24일	JYP Ent.	5,586	31,000	75,000
29일	더블유게임즈	3,190	66,400	87,022
11월 20일	넷마블	25,188	124,000	6,750
12월 17일	스튜디오드래곤	27,500	91,200	10,920
19일	코오롱티슈진	13,540	39,450	46,875
24일	엔자캠생명과학	51,200	91,400	51,000

모멘텀이 있다”며 “출시작들이 안정적인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저 효과가 따라온다는 점이 다른 업종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올 초에는 세노텍(59만9545주), 미스터블루(10만 주), 티앤알바이오랩(1만5400주) 등 9개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했

다. 세노텍과 미스터블루의 행사가격은 각각 639원, 1312원으로, 당일 종가(2000원, 2310원)와 비교하면 최대 212%의 수익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톡옵션 행사는 주가 상승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

라며 “행사가 급증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2월 말까지는 국내 증시가 최고점 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밑바닥에 있다면 스톡옵션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2019년 1월 1~20일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품목	금액	증감률(금액)	국가	금액	증감률(금액)
반도체	42.8	-28.8(17.3↓)	중국	66.7	-22.5(19.3↓)
석유제품	18.2	-24.0(5.8↓)	미국	35.1	16.9(5.1↑)
승용차	17.6	29(4.0↑)	EU	26	4.0(1.0↑)
무선통신기기	11.1	8.1(0.8↑)	베트남	24.7	-15.1(4.4↓)
자동차부품	11.1	0.2(0.0↑)	일본	14.6	-9.0(1.4↓)
선박	10.5	-40.5(7.2↓)	싱가포르	7.3	2.7(0.2↑)
			중동	5.9	-38.1(3.6↓)

1월 수출입 규모 나란히 감소 경기침체 장기화 불길한 신호

수출 14.6%·수입 9.5% 내리막
수입액마저 동시에 줄었다는 건
향후 수출·내수 전망에 ‘부정적’

한국 경제에 연초부터 먹구름이 가득하다.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고 수입액도 9.5% 줄었다. 수출액 감소는 국제유가 및 반도체 디램(DRAM) 단가 하락으로 예견됐던 상황이지만, 수입액 동반 감소는 뼈아프다. 수입액은 향후 수출 증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내수경기를 예고한다는 점에서다.

일반적으로 수출액이 늘면 수입액도 함께 늘어난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밸류 체인지(value change) 때문에 수출을 하려면 수입도 해야 한다”며 “경기가 좋든 나쁘든 수출과 수입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단 수출액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둔화해도 수입액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투자가 활발하거나 향후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상황은 수출 감소에 더해 투자가 침체되고, 수출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다는 의미다.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8개월 연속, 6개월 연속 하락한 게 단적인 예다.

신 교수는 “수출액에는 수출뿐 아니라 국내 경기도 일정 부분 반영된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이 62.5% 급감한 것은 반도체 수출이 단가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세가 꺾였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3년 전과 비교해 물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가격 거품으로 수출액만 늘어났던 것이었다”며 “현재는 가격이 하락한 데 더해 물량까지 줄면서 수출액 감소 폭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의 특수성을 배제하더라도 국제유가 하락, 미국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수출액 감소 및 대외 여건 악화는 내수 및 고용시장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미 지난해 11월 설비투자는 2개월 만에 감소(이하 전월 대비)로 전환됐으며, 건설투자(건설기성)는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점론’이 제기되던 반도체 수출에 실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다. 올해엔 수입액마저 감소로 전환돼 투자 전망은 더 어둡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일자리 증가 둔화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수출·내수 둔화세라면 정부의 올해 목표인 취업자 15만 명 증가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자본시장에 온만큼 좋아됩니다

전자증권제도

발행을 더 신속하게
유통을 더 원활하게
시장을 더 안전하게

마침내, 종이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뀝니다

2019. 9. 16.

**전자
증권
제도**

전자증권제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 ✓ 전자적 증권 발행으로 주식사무처리기간 단축
- ✓ 연간 약 1,809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 ✓ 종이증권의 위·변조, 분실 위험 원천 제거

2019년 9월 16일부터 증권의 발행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자증권시대를 대비한 발행행사 준비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법무부

KSD 한국예탁결제원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특검·국조 공방으로 비화

야 '초권력형 비리' 규정 공세
"청와대가 나서야 할 상황"
민주, 적극 대응하지 않기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도입 논란으로 비화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인연을 근거로 '손혜원 파동'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당하다면 센 권력을 믿고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손 의원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

발하고,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손 의원이 대통령의 권위를 업고 다니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로,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 의원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손 의원이 목포 근대화 유산 지정과 예산 책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문화재청장을 불러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 의원이 탈당한 만큼 일단 적극 대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평화당 의원과 손 의원은 이날도 감정 섞인 격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투기의 아이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아무리 구입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불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강 건너에 아파트 하나 소지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어딜 감히 다선의원이시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장관까지 역임, 일생을 통해 불세출 배신의 신공을 보여준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과 견주겠습니까?"라며 "문재인 당 대표 배신하고 나가서 당 만들고, 안철수 후보 대선 끝나자 바로 배신해 총을 겨눴다"고 비난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孫 남편 재단, 세액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문화재 지구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남편 명의의 비영리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해 2월 13일 전에 허가·인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장관의 지정·고시가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2014년 10월 설립된 단체로, 경과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면 개인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법인도 손비처리 등 세제 혜택이 있다"며 "손 의원이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됐지만, 제도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기초연금 부담금에 파산 지정" 구청장 편지 공개한 文 대통령

"자립도 30%나 70%나 똑같이 지원"
수석·보좌관 회의서 개선 방안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 부담금이 너무 커 파산할 지정'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데 대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정 구청장의 편지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으로 기초연금 인상으로 구의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구의 재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정 구청장은 "노인 인구비율은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세 단계로만 분류돼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지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문 대통령에게 하소연했다. 그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의 부담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민주당 새 정책위의장에 4선 조정식 의원

원내 수석부대표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4선의 조정식(사진)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1992년 통일민주당 기획조정실 전문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조 의원은 1999년까지 '빈민 운동'으로 유명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제 전의



원 지역구였던 경기 시흥에서 당선,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과 20대 전반기 국회 국토위원장 등을 지냈다.

'재판 청탁' 의혹으로 원내 수석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한 서영교 의원의 빈자리에 이철희 원내 기획부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일한다. 조현정 기자 jhj@

靑, 민정 김영배·정책조정 이진석 등 비서관 4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민정·정책조정·사회정책·자치발전비서관 등 4명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후임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에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에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에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을 임명했

다. 공석인 고용노동비서관에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UAE 특임)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교(이라크 특임)특별보좌관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동민 기자 lawsdm@



진드 놀래!
진드 놀아~
얼마나 놀았을까!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www.childfund.or.kr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석탄발전→LNG발전 추가 전환 전기요금 '10.9%+α' 오를 듯

(20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
석탄발전소 비중 43%→36%
전기료 2025년 점진적 인상
LNG 세금 낮춰 경제성 제고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일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10.9%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력 시장에서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2017년 43.1%였던 석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줄이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일부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미 태안 1·2호기 등 6기는 LNG로 연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가 많은 수도권과 충남의 석탄발전소 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발전소를 추가로 LNG발전소로 전환하도록 사업자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0.9%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획에는 석탄발전소 6기의 LNG 전환 비용만 반영됐다. LNG 전환 규모가 계획보다 늘어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LNG로 전환한다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전환될지 파악하고 그

이후 요금에 대한 영향을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에는 2025년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돌리도록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비용까지 고려하는 '환경급전'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1kg에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는 반면 LNG 개소세는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떨어진다. 유연탄을 사용하는 석탄 발전소의 경제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환경 규제도 강화된다.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또 11조5000억 원을 투자, 탈황·탈질 설비 등 기존 석탄발전소의 환경설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세종청사' 자녀 54% 세종에 없다

1149명 중 525명만 현지 재학
"균형발전 취지 안 맞아" 지적

명(35%), 기획재정부 123명 중 45명(37%), 국가보훈처 53명 중 20명(38%), 보건복지부 91명 중 36명(40%), 환경부 85명 중 36명(42%), 국민권익위원회 60명 중 27명(45%), 산업통상자원부 113명 중 51명(45%) 등의 순이었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16개 부처 공무원 자녀 중 절반 이상이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정부 부처 이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세종청사에 있는 16개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당 기관 재직자 자녀 1149명 중 세종 소재 고교 재학생이 525명(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부처별 재직자 자녀 중 세종 소재 고교재학 현황을 보면 인사혁신처가 47명 중 8명(17%)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88명 중 24명(27%), 문화체육관광부 48명 중 17

세종시를 계획할 당시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75%)을 제외한 나머지 세종 부처 재직자 자녀 절반이 세종 이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의미다.

16개 부처 재직자 자녀 중 일반고에 재학하는 자녀는 803명으로 그 중 372명만이 세종시에 재학 중이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관내의 고등학교는 학생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세종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절반 이상이 자녀를 수도권에 두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해소, 지역분권 등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출산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한·EU FTA '지속발전' 협의 김대환(오른쪽)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가 21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부터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등록 말소' 가입 고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예방을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에 가입된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에 가입된 고객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540만 명)의 약 0.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이달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등

록 말소 시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은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정위는 현재 피해에 노출된 2만2000명의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등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공정위 '애플, 이통사에 갑질' 결론 못내... 내달 3차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달 16일 전원회의(법원 격)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애플코리아 측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한 결과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고, 특히 광고기금

조성은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공정위 사무처·검찰 격) 측은 "경제분석 결과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내달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3차 심의를 진행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마지막 치과치료 언제였나요?

잇몸을 지키는 Daily Care, **검가드**

액상 타입으로 잇몸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강력하게!
잇몸 질환 원인균 99.9% 제거

검가드,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피곤할 때마다 잇몸이 쉽게 붓는다
- 양치질 등 작은 자극에도 잇몸에서 피가 난다
- 평소보다 입 냄새가 심하게 난다
-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 치은염, 치주염 예방 및 개선효과
치은지수(GI)개선 효과 정도(6주사용)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6주 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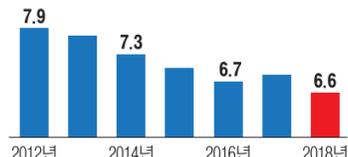
■ 잇몸질환 원인균 잔여비율 99.9% 살균효과(시험기관·노르젠(주))
■ TPA 성분으로 잇몸 혈액순환 촉진 ■ 판테놀 성분으로 잇몸을 탄탄하게

잇몸가드린 검가드

中 경제성장률 28년來 최저... 바닥론 솔솔

지난해 GDP증가율 6.6% “경기 하방 압력 심할수록 정부 대응도 강력” 기대감 중국증시 올들어 5% 상승

중국 국내총생산(GDP)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상하이종합주가지수 추이 (단위: 원, 전일 대비)



보다 0.1%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9년 1분기(6.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GDP와 별도로 발표한 다른 경제지표들은 예상보다 양호했다. 작년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해 시장 예상치(8.1%)를 웃돌았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7% 늘었다. 시장 예상치는 5.3% 증가였다. 2018년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5.9% 늘었다. 증가율은 2017년(7.2% 증가)보다 축소했지만 예상치 6%보다는 양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창 전성기 때의 두 자릿수 성장세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게 맞지만, 중국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며, 경제 규모 확대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3분기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서로 주고받았다. 중국산 제품은 총 2500억 달러어치가 추가 관세 대상으로, 이 때문에 이들 제품은 대미 수출이 크게 줄었다. 무역전쟁 영향이 표면화함에 따라 소비, 생산 모두 가을 이후 침체가 두드러진다. 부채 감축으로 중소 영세기업 등 민간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도 부담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 정부가 금융 완화,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델리티인터내셔널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감세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최근 수개월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에 중국증시 밸류에이션이 매우 매력적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약 24% 하락해 세계 주요 증시 벤치마크 중 최악의 성적을 냈던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올 들어 약 5% 상승하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심지창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성장률은 올 2분기 이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 정부 대응도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월드엑셀런스 주가 추이 (단위: 달러)



美 ‘셋다운’ 30일째 급전 찾는 공무원들

전당포·고리대금업체 주가 급등

미국 연방정부의 셋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30일째를 맞은 가운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생활고로 전당포와 고리대금 업체를 찾으면서 이들 업체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단기대출업체 월드엑셀런스 주가는 1개월 전 셋다운이 시작된 이래 22%,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전당포 운영업체 E코프는 20% 각각 급등했다.

두 회사 모두 의외의 비용 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때아닌 특수를 만났다. 투자회사 캐피털 이노베이션의 마이클 언더힐 최고투자책임자(CFO)는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나 그밖의 지출을 위해 단기 유동성을 찾고 있다”며 “대체 대출 플랫폼들이 공백을 메꾸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잡포털 커리어빌더의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약 78%는 체크카드 결제로 생활한다. 같은 기간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조사에서는 미국인 가정의 절반 가까이가 대출이나 물건을 내다팔지 않고 비상금 400달러도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공무원들이 TV에서부터 보석 등 값 나가는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고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를 전당포에 지불하고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원금을 내고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월드엑셀런스는 셋다운으로 인해 금전적 부담을 안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자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연기해주고 있다. 신규 고객은 이자와 수수료 없이 1250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단기 대출을 빌리므로 업체들이 고율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약탈적일 수 있으며, 돈이 아쉬운 사람들을 부채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책임대출센터의 스타트 아스트라다 이사는 “대출자들은 부채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며 “자칫하다간 은행 위약금, 청구서 연체료, 급기야 파산 등의 재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G2 무역전쟁 속 ‘투자 피난처’ 된 베트남

제조업 수혜...GDP증가율 7.1% 인프라·숙련공 부족 여전히 숙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작년 연말과 연초 글로벌 주식시장이 출렁인 상황에서 베트남이 투자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해 주목받고 있다.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의 기업 친화적 정책이 신흥국이지만 안정적 수익률을 내도록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제조업자들이 갈 곳을 잃은 상황에서 베트남은 비교적 안전한 자유무역 지대이자 중국과 가깝고 노동력도 싼 매력력 있다.

폭 총리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베트남의 이 같은 매력을 강조할 방침이다.

폭 총리는 최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양과 질 모두에서 우리 제품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해산물과 공산품, 신발, 전자제품 등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중심 국가로 성장하면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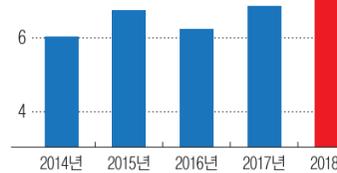
베트남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1%였다. 올해에는 6.6~6.8% 수준이 될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베트남은 16개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지난해 수출 규모는 244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의 교역 규모도 480억 달러로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는 고민거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세계 경기 둔화는 베트남과 같은 국가의 수출 상황을 더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교역 규모의 4분의 1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나온다.

특히 폭 총리는 중국에서 이전을 고민 중인 많은 기업이 아직 동남아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기반시설과 숙련공이 부족한 현실 등은 현재 조립 위주의 제조업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다은 기자 gamja@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단위: %)



中 최대 명절 춘제 ‘30억명 대이동’ 중국에선 벌써부터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 귀성길이 시작됐다. 베이징역에서 21일(현지시간) 시민들이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타기 위해 길게 줄서 있다.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3월 1일까지 무려 30억 명이 춘제를 맞아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3년간 막대한 손실”... GM, 브라질서 발 빼나

자클렌가 CEO “자본 계속 쏟아붓지 않을 것...신규투자, 올해 실적에 달렸다”

자클렌가의 이메일은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11일 투자자들에게 중남미 시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현지 근로자들은 GM이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판매를 회복하면서 폭스바겐과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을 제치고 브라질 1위 자동차업체가 된 가운데 자클렌가의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가 나오면

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CNBC는 전했다. 브라질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8년 브라질 신차 판매는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GM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FCA와 폭스바겐이 나란히 2~3위에 올랐다. 브라질 전체 신차 판매량은 약 247만 대, GM은 38만9500대로 각각 집계됐다. 브라질 ‘상 주제 두스 캄пус’ 금속노조의 해나투 아우메이다 부위원장은 “GM의 성명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그들은 브라

질에서 좋은 순간을 보내고 있다. 공장 폐쇄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클렌가 CEO는 “브라질 경영진이 ‘생존계획’을 준비했다는 점을 미국 본사 중역들에게 주지시켰다”며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역 노조와 공급업체, 판매 대리점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GM의 새로운 투자와 우리의 미래는 이 계획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라질 경제는 2015~16년 경기침체 이

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다만 최대 수출시장인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과 자국 통화 가치 급락으로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새로운 어려움에 처했다. 투자자들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상이 자신들이 약속했던 경제개혁을 실현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업체들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 연장 등 15년 기한의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초 정권을 잡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 대통령은 정부가 자동차산업 등에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기존 보호주의적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브라질 경제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북미 공장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제너럴모터스(GM)가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서도 발을 뺄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카를로스 자클렌가 GM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브라질 내 5개 생산공장 종업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3년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의 희생이 요구되는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다”고 운을 뗐다. 그는 “더는 돈을 잃을 수 없다. 우리는 자본을 계속 쏟아 붓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투자는 올해 실적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응원하기에
동행하는 행복
동행하는 행복

하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응원하기에

2019년 1월 대한민국은
모두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사회적금융 실적 공개... 차정부의 '기술금융' 데자뷔

불안정한 사회적 기업 재무상태
금융 지원 확대 부실 연계 가능성
실적 경쟁 등 '보여주기' 전략 우려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형

부문	영역	
	일반형	협동조합형
사회적 경제 기업의 부합성	기업철학	조합철학
	참여·배려 및 연대	참여·배려 및 연대
	사회가치 지향	조합원 편익
	사회환원	공동체 상생
금융지원을 위한 타당성	경영역량	경영역량
	교육	교육
	운영활동	운영활동
	재무상태	환원 및 지속

※출처: 금융위원회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별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을 반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방식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사회적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한 탓에 금융 지원 확대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다. 자칫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지난해 '은행권 사회적금융 공급실적'을 공개한다. 이후 일정 기간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투자 등 규모를 공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에서 어떻게 사회적금융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취합해서 반기 또는 분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 3월부터 매분기 각 공공기관의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7곳이다. 그 밖에 비영리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2곳도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이들 기관의 지난해 사회적 금융 실

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 금융위가 직접 사회적 기업 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등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춘 선심성 금융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상당수가 적자에 시달리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말 기준 사회적 기업 1653곳을 조사한 결과 정부 보조금 없이 영업 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505곳(30.8%)이었다. 전년보다 6.4%포인트 늘었으나 여전히 10곳 중 3곳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이었지만 실효성 논란을 야기했던 '기술금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만들어 매달 은행별 기술금융 공급 규모와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6년 만에 80조 883억 원에서 166조 4958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성장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숙박업과 음식점 등 기술금융 실적에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은행이 기술금융을 위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단순히 실적 경쟁에만 빠졌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정책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리스크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은행권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 업무를 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투자를 심사하는 사회적 금융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원했다가 부실이 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면 면책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중은행이 자체 사회적 금융 수행 실적과 공공 부문 사회적 금융 수행 실적을 더해 대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김보름 기자 fullmoon@

더 싸늘해진 '귀족 노조' 향한 시선 '파업의 역설' 보여준 국민은행

금융 인사이트

설 연휴 2차 파업 철회 불구
여론 비난·노사 합의 불투명

영업 중단 수단도 무용지물
협상 우위 '압박 카드' 상실

KB국민은행 노조가 21일 설 연휴 직전에 예고했던 2차 파업을 철회했다. 고객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2차 파업을 강행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듯 싶다. 하지만 허인 행장과 노조 간의 임단협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과급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승진이 안 될 경우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페이밴드 폐지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신경전이다. 페이밴드는 노사 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날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중노위 사후 조정이 남았지만, 노사 간 합의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라 판단해 상급단체인 전국금융노조가 2차 파업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밤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 전까지 페이밴드의 신입사원 적용을 유보한다고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잠정 합의서'를 교환했지만, 막판에 '무기한 적용'에 대해 사측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완전한 합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쟁점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파업에 따른 시장 변화가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사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국민은행의 파업은 당초 '명분'의 싸움이었다. 19년 만에 열었다는 상징성은 있었지만 '돈만 요구하는 고액연봉자'라는 식의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국민은행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고 따라서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논의가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되레 노조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여론도 등을 돌렸다. 국민은행 직원은 영업 압박과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했지만, "그 정도의 대가를 받지 않느냐"라는 반박에 노조의 목소리는 퇴색됐다. 더욱이 노조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작용했다. 여기에 설 연휴 고객이 가장 몰리는 시기에 맞춰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문제는 그 이후다. 노조는 '영업 중단'이란 강력한 무기로 사측을 압박했다. 사측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은행 노조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수많은 고객이 이미 온라인 업무에 적응한 탓이다. 사회는 이런 결과를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노조로서는 최후의 무기를 잃어버린 셈이다. 앞으로 노조는 이런 변화를 직시하고 사측과의 협상에서 어떤 자세로 나설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는 이달 23일과 28일 각각 1, 2차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있다. 객진산 기자 jinsan@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OK저축은행

최윤 회장 "사업 다각화 통한 질적 성장"

아프로서비스그룹 경영전략회의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이 올해 국내 내실 경영과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을 이뤄나가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19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영전략 회의에서 "앞으로 국내외 내실 경영과 함께 사업의 다각화와 과감한

M&A 등을 통한 도전을 계속해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변화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주도하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자"며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2020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 등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 임직원 3000명이 참석

했다.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회의는 매년 1월 최 회장이 직접 진행한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올해 어려운 경영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선행적 위험 관리'와 '고객 관점의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한다. 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준비, 내실 경영 등을 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 지난해 우수 직원과 우수 지점 시상식, 직원 만찬 등 임직원 이 소통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모형...

▶1면서 계속

협동조합 재무상태의 경우 일반형에서 영업이익증가율을 빼고, 조합원 환원 정도를 본다.

이는 일반 기업과 같은 평가 기준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총이익률은 중소기업

보다 높지만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인건비 등 조직 운영에 꾸준히 투자하기 때문이다. 자본금이 적은 영세한 조직이 대다수라 재무정보를 만들어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상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 대출 시 재무제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요소만 수십 건에 달한다.

보고서에는 또 사회적 경제 기업 금융 지원 시 지원 금액과 업력에 따라 평가지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

다. 금액이 적을수록 사회적 경제 기업 설립 목적과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가치, 대표자 역량, 제품·서비스, 매출 등을 부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설립 1년 미만인 기업은 실적자료가 없어 사업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해 이르면 7월 '대출 평가 모형'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임 저축은행회장 박재식... 예보율 인하 탄력

업계 "급 출신... 규제완화 기대"
선거發 내부 갈등 봉합은 숙제



박재식(사진)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에 선출됐다. 박 신임 회장은 기획재정부를 거친 관료 출신으로 금융당국과 업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경쟁력을 갖춘 신임 회장이 해묵은 규제를 완화해줄 '해결사'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1일 서울 덕계이호텔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박 전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최종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79개 회원사 가운데 76개 회원사가 참여했다. 박 회장은 3분의 2 이상 득표에 실패해(44표) 2차 투표에서 과반(45표)을 얻어 당선됐다. 상대 후보로 나선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는 28표를 얻었다. 기권은 1표였다. 박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관료 출신인 박 회장이 규제 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예금보험료 인하를 언급했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당연히 해결돼야 한다"며 "또 저축은

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업구역 제한 관련 지역무비율 가운데 비대면 거래는 제외시켜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동일인여신한도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과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주고, 저축은행 업계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공통적으로 관료 출신 회장이 선임된 만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더했다. 실제로 박 회장은 당선 직후 업계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예금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박 회장은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중앙회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전체 회원사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도 진행해야 한다. 기존 중앙회장 선거는 단수 후보 추천 이후 추대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7명의 후보자가 경쟁에 나서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부 민심 수습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용욱 기자 dragon@

“日, 소재 수출 금지” 현실화 땀 반도체 ‘설상가상’

심상찮은 한일 관계 전자업계 불똥 우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긴장하게 만든 일이 발생했다. 일본에서 A사의 불화수소(불산 플루오르화수소·이하 불산) 수출 건이 현지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A사는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사용되는 불산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해 왔다. 불산은 전략물자다. 수출·수입을 위해서는 일본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건이 거절당한 이유가 불명확했지만 불산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본의 위력을 느끼게 해준 사례였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논란 등을 놓고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반도체업계가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하나로 불산 등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2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실제로 이뤄진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소재 수출 금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



일본 세척용 ‘불산’ 제재 보도

장기계약 맺은 대기업보다

웨이퍼 생산 中企 직격탄

반도체장비 국산화도 20%뿐

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사용되는 불산은 높은 순도가 필요해 스텔라, 모리타 같은 일본 기업이 대부분 생산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역시 고순도 불산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독점인 셈이다.

일단 일본이 전격적으로 불산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업계는 점친다. 일

본이 자국 업체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일본 업체와 장기 계약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수출 중단 시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의 경우 일본의 예도 불산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불산 수출 중단이 현실로 나타나도 바로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 역시 일본 등 해외 의존도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 국산화율은 20% 수준이다. 10년 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치다. 2000년대 들어 장비 국산화에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쏟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체 상태가 계속됐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이 같은 일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재 및 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일본의 경우 반도체 사업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 소재·재료·장비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며 “그원천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IBK경제연구소 산업연구팀 연구원도 “한국은 이 시장(소재·장비)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을 따라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적에 취해 있게 된다면, 향후 2~3년 이내에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록 기자 syr@

기아차 7년 누적 100만대 돌파

기아차가 영국 시장 진출 28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달성했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해 말 영국에서 누적 판매 99만8069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는 100만 대를 넘겼다.

기아차는 1991년 소형차 프라이드 수출로 영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고 최근 8년 동안에는 62만6000대를 팔아 큰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씨드와 스포티지 등 유럽 전략형 모델이 생산되는 슬로바키아 공장이 2006년 설립된 이후 영국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모델별 누적 판매량을 보면 1995년 출시된 스포티지가 지난해까지 24만1912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2004년 출시된 모닝이 19만1926대, 2007년 출시된 씨드가 13만8253대로 뒤를 이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현대기아차가 2차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한 에어백 시스템.

현대차 ‘2차 충돌 예방’ 에어백

현대기아자동차가 1차 충돌은 물론, 2차 충돌까지 고려한 에어백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 에어백이 1차 충돌에 집중한 반면, 새 기술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충돌까지 대비해 에어백의 전개 방식과 속도 등을 조절한다.

현대기아차는 국내의 교통사고 사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토대로 복합충돌 상황에서 탑승자 안전도를 높인 새로운 에어백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복합충돌이란 1차 충돌에 이어 다른 자동차나 시설물과 연이어 부딪히는 경우를 말한다. 북미자동차표본통계인 NASS(National Automotive Sampling System)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5만 6000여 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복합충돌은 약 30%에 달했다.

자동차 사고는 1차 충격으로 탑승자의 자세가 비정상적으로 바뀌어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탑승자의 불안정한 자세와 속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정밀하게 계산해 추가 충돌 때 에어백이 더 쉽고 빠르게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하유미 기자 jscs508@ 안경무 기자 noglasses@

차 안 팔리는 한국지엠, 결국 모든 공장 구조조정 사정권

지난해 판매량 30% 급감 가동률 50% 아래 떨어져 스파크 단종 앞둔 창원 위기 부평공장 감축 논의 시작

지난해 5월 한국지엠이 꺼내든 ‘군산공장 폐쇄’ 카드는 구조조정 신호탄에 불과했다. 당시 실적 악화와 판매 부진으로 군산공장이 구조조정 1순위로 꼽혔지만,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역시 비슷한 악화일로 걷으며 모든 공장이 결국 구조조정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부평공장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공장은 국내 쉐보레 라인업 가운데 생산·판매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말리부의 판매 부진을 겪고 있어, 생산물량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비정규직 비중이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아 고부가가치 자동차를 생산해야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지난해 5월 31일, 22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희박하다.

또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GM이 아베오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베오는 부평2공장에서도 생산되는데 판매중단시 공장 가동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현재 부평 2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장 내 물량 조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창원공장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곳

역시 생산 환경이 가동률 추락과 적자 지속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창원공장의 주력 모델인 경차 ‘스파크’가 2021년 단종을 앞두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생산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2022년부터 스파크 후속 모델인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생산하려면 경차에서 CUV로 전환하기 위한 공장설비 개선 작업이 필요한데,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지엠의 모든 공장이 가동률 50% 아래로 떨어지며 구조조정 가능

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국지엠의 완성차 생산공장은 지난해 폐쇄된 군산공장을 제외하면 부평, 창원공장 2곳이 전부다. 보령공장은 완성차가 아닌 트랜스미션을 생산한다.

한국지엠은 지난 1년간 국내 소비자들이 외면한 탓에 총 10만 대의 차량도 팔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지엠 국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5% 급감한 9만3317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내수에서는 쉐보레 볼트 및 볼트 EV 등 친환경차를 제외한 모든 모델 판매가 감소했다. GM은 세계에서 원가 계산을 가장 철저하게 하는 자동차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북미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구조조정을 무섭게 진행하고 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의장)는 “한국지엠은 생산성 및 수익성 감소, 시장성 하락,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적자 등 감내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혁신 없이는 구조조정 순서만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안경무 기자 noglasses@

하와이의 밤, 한화에너지가 밝힌다

태양광 ESS 발전소 건설·20년 운영 계약 1570억 규모...단일 배터리 사업 최대 용량

히에너지 신사업 분야의 강국인 미국에서 수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총 7개 회사 중에는 세계 1위 ESS 기업인 미국 AES사를 비롯해 세계적인 ESS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한화에너지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ESS 사업

의 강자로 입증받았다는 평가다.

류두형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는 “태양광과 ESS의 융합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한화에너지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너지는 미국 하와이 전력청(HECO)이 주관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입찰에서 태양광 발전 52MW ESS 208MWh 연계 사업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미국 하와이 오아후(Oahu) 섬에 5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ESS 배터리 용량 208MWh를 연계한 발전소를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프로젝트 개발비용과 건설비용 등 약 1억4000만 달러(약 1570억 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다. 이는 국내 기업 중에서 단일 프로젝트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최대 용량의 사업이며, 특

한화에너지는 자회사인 174파워글로벌(Power Global)을 통해 본 사업의 개발부터 자금조달, 발전소 운영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 전 분야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174파워글로벌은 북미 태양광 시장에서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기준 약 1GW, 개발 기준 약 9GW의 프로젝트를 보유한 업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2020년까지 10GW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글로벌 No.1 태양광 발전사로 도약함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와 ESS를 활용한 시스템솔루션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는 종합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LS엠트론, 농기계 수출기업 모집

LS그룹의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전문기업인 LS엠트론(대표 김연수)이 국내 중소 농기계 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LS엠트론은 다음 달 28일까지 중소 농기계 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수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LS GBPP(LS Global Business Partnership Program)’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LS GBPP는 국내 농기계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고, LS엠트론의 40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역량,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사실상 한진 경영권 넘기라는 KCGI

‘행동주의 펀드’의 역습 엘리트 사태와 비교하니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가 한진 그룹에 사실상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KCGI의 이러한 움직임이 앞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철회를 이끈 세계 최대 규모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트 매니지먼트’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KCGI는 21일 한진칼과 한진 및 이들의 대주주 측에 ‘한진그룹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공개 제안했다. KCGI는 “한진그룹은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낙후된 지배구조로 일반 주주, 채권자, 직원 더 나아가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제고’, ‘고객 만족도 개선 및 사회적 신뢰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KCGI는 우선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KCGI는 지배구조 위원회 구성을 △경영진이 추천한 사내이

KCGI 공개 제안 주요내용

지배구조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

- 1 지배구조위원회 설치
- 2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

기업가치 제고방안

- 1 칼호텔네트워크, LA월서그랜드호텔, 와이키리조트 등 투자 재검토
- 2 외부 전문가 자문 통해 한진그룹 이미지 이슈에 대한 대책 수립

고객만족도 개선 및 사회적 신뢰 제고방안

- 1 상설협의체 조직 통한 사회적 책임 기능 강화 방안 모색
- 2 임직원 자존감 회복 위한 프로그램 마련



오너 배제한 지배구조 개선 제안 거부 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예고

현대차·삼성 혼든 엘리트와 유사 토종펀드 장점 살려 여론전 유리

사 1인 △KCGI가 추천한 사외이사 2인 △외부전문가 3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상설자문기구로 사실상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된다. 6명의 이사 중 총수 일가에 배정된 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진 오너가의 경영 의견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KCGI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도 제안했다. KCGI는 칼호텔네트워크, LA월서그랜드호텔 사업 등에 대한 투자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KCGI는 이번 공개제안이 거부되면 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단에 이끌렸던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트 매니지먼트를 연상케 한다. 엘리트는 폴 싱어 회장이 이끄는 42년 역사의 헤지펀드로 ‘주주행동주의’(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표방한다.

KCGI와 엘리트는 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뒤 이사회를 움직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분을 확보 이후에는 해당 기업에 구조조정·배당 확대 등을 요구해 수익 창출을 시도한다.

일례로 엘리트는 지난해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 합병을 요구하며 지배구조 개편의 ‘판’을 흔들며 시세차익·고배당 등 단기 이익 창출을 시도했다. 이 외에도 엘리트는 2016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문제 삼으며 삼성전자 분할·30조 원 현금 배당·미국 상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펀드 속성은 같은데 이를 보는 시각에는 차이점이 있다. KCGI가 ‘토종 펀드’라는 점이다. KCGI가 국내 자본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오너가 갑질 파문’ 등 약자에 직면한 한진그룹이 ‘국부 유출’ 등을 명목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호소할 명분이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현대차의 경우 엘리트의 경영 참여에 대해 “현대차가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은 외국 투기 자본에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주행동주의라는 측면에서 두 자본(엘리트·KCGI)의 움직임은 시장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결국은 이 움직임이 실제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Hanmi 한미약품
광고심의필: 2018-1455-004400

99세까지 건강하게-



소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엄마 아빠, 나인나인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28가지**

국내 최다 성분 한국인 맞춤 종합비타민

*2018년 8월 기준

나인나인[®]

정

24h 하루 한알

【효능·효과】 ●육체피로 ●눈 건조감 완화 ●병중/병후의 비타민 보급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십시오】
효능·효과 및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IT·오디오 ‘덕후’ 둘 다 잡는다

LG 엑스봄AI씽큐 스피커 출시 꽃 메리디안 오디오 기술 접목

LG전자가 프리미엄 사운드와 인공지능(AI) 기능까지 더한 스피커를 선보였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인공지능 스피커 ‘LG 엑스봄 AI 씽큐(ThinQ)’(모델명:WK7·사진)를 21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LG 엑스봄 AI 씽큐는 LG전자의 독자적인 오디오 기술뿐만 아니라 영국 명품 오디오 브랜드 ‘메리디안 오디오(Meridian Audio)’의 뛰어난 기술을 더해 최상의 사운드를 구현한다. LG 엑스봄 AI 씽큐는 일본 오디오 협회(JAS)에서 부여하는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인증을 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되는 프리미엄 오디오 기기들이 이 인증을 받는다.

LG 엑스봄 AI 씽큐는 구글의 음성 인식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용자는 음악추천, 날씨, 일정관리, 번역, 알람 등 구글 연동 기능을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음성으로 편리하게 인공지능 ‘LG 씽큐(LG ThinQ)’ 기전의 상태를 확인하고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車 산업 대세는 커넥티드카”

KPMG 글로벌 동향 보고서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계 자동차산업을 이끌 핵심 트렌드로 ‘연결성 및 디지털화’가 선정됐다. 세계 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 요소로 자동차산업 환경이 어려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 인터내셔널이 21일 발표한 ‘2019 KPMG 글로벌 자동차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2030년까지 자동차산업을 이끌 핵심 트렌드로 ‘연결성 및 디지털화’를 택했다. ‘배터리 전기차(56%)’와 ‘수소전기차(56%)’가 뒤를 이었다.

자동차산업 경영진 1000명과 소비자 2000명은 올해 자동차 업계 주요 이

슈로 △규제 및 정책이 산업에 미칠 영향 △국가별 보유 자원과 파워트레인 기술의 매칭 △소매업 지형의 변화 △기업 간 협력 필요성 대두 △소비자의 하이브리드 차량 선호 △올해 최고의 제조 트렌드로 배터리전기차 선정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최고의 브랜드로 도요타 선정 등을 꼽았다.

경영진의 77%는 규제 당국이 자동차산업의 기술적 의제 설정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 경영진 83%와 미국 경영진 81%는 각 국가가 분명한 자동차산업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서유럽은 응답자의 50%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동과 운송의 개념이 통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자동차산업 경영진의 60%는 미래에는 인간의 이동과 상품의 운송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83%는 이미 ‘모빌리티스틱스(모빌리티+로지스틱스)’ 업계가 등장했다고 답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세상 모든 새로움의 시작



5G가공장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팩토리
이 안에서 로봇은 더 안전하게 일을 돕고,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이끄는 기술, KT 5G가 시작합니다

5G로 실시간 연결되어 안전하게 사람을 돕는
5G 협동 로봇

원격으로 5G를 통해 실시간 문제 해결을 돕는
5G AR 글래스

PEOPLE.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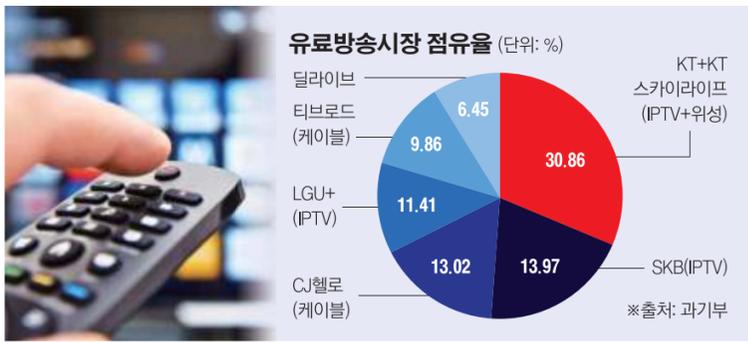
글로벌 OTT 밀려드는데... 또 규제카드 만지작

국회가 합산규제 제도입, 통합방송법 제정 같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유료방송은 규제에 발목이 잡힐 썬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합산규제 제도입 법안을 심사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시장에서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지난해 6월 3년 기한이 끝나 일몰됐지만, 곧바로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재논의가 시작됐다.

점유율 확대를 제한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IPTV와 케이블 등 유료방송 업체 간 대형 인수합병(M&A)이 예상된다. 하지만,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유료방송업계는 M&A에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때문에 나온 CJ헬로비전, 디라이브 등 케이블 업체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위, 내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제도입 법안 심사 업계 "점유율 제한, 시장 반영 못한 구시대적 규제" 거센 반발 "OTT 사업자 규제 사각" 통합방송법 개정안도 '역차별' 우려

업계에선 유료방송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전통적 유료방송만을 대상으로 하는 합산규제가 OTT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과거 일방향이던 미디어는 방송과 시청자가 서로 소통을 하는 양방향 서비스로 변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송시장의 경계도 통신 사업자로 범위가 확장되며 무너지고 있다"면서 "점유율 제한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도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점유율

상한선을 30%로 규제했다. 그러다 2009년 미국 유선방송사업자 컴캐스트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점유율상한선을 폐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유료방송시장은 초대형 M&A를 성사시키면서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2위 통신업체 AT&T는 미디어 시장 3위 업체 타임워너를 합병했고 디즈니는 '21세기 폭스'를 인수했다. 컴캐스트는 영국 위성방송 스카이를 인수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합방송법 개정안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에 대한 논의보다 방송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까지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OTT를 방송으로 끌어들여 규제하지는 내용이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인데, OTT는 공중에 전파하는 방송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OTT가 사실상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는 '최소 규제' 원칙으로 접근하며 OTT를 '통합방송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OTT를 방송으로 규제한다고 해도 국내외 역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모두 없애기 위해 계속 법안을 보완하다 보면 최소 규제는 사라지고 규제 강도는 훨씬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에 유튜브는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와의 계약 없이 서비스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월정액을 받고 광고가 없는 프리미엄 서비스 '유튜브 레드'를 운영하면서도 규제 예외 사업자가 되는 셈인데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법근 기자 nova@

설 다가오는데... 중소 2곳 중 1곳 "자금 사정 곤란"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설을 앞두고 8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50.8%)의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설 대비 3%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곳은 9.5%에 그쳤다.

매출액 규모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적은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곤란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56.3%)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판매 부진(47.5%), 원부자재 가격 상승(26.9%), 판매대금 회수 지연(22.7%),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17.1%), 금융기관 이용 곤란(10.6%) 등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과반을 차지해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중소기업들이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매출액 적을수록 더 어려워 56% "인건비 상승이 원인" 평균 상여금 1인당 65만원

중소기업은 이번 설에 평균 2억 206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지난해(2억 3190만 원)보다 113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자금이 줄었음에도 부족자금은 전년(5710만원) 대비 1430만원 증가한 714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필요 자금 대비 부족률이 전년 대비 7.8%p 증가한 32.4%를 기록했다.

한편 '대책 없음'이라는 응답도 27.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매출액 기준 10억 원 미만 업체 위주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영세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 상여금(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대비 4.2%p 감소한 51.9%로 나타났다.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65만 1000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 대비 52.5%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설 자금 사정이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나빠졌다"며 "판매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기업들의 경영 여력을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이낙연(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호 한국방송협회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 국무총리,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뉴스

웹케시 "경리나라, 中企 대표 솔루션으로 키울 것"



핀테크 플랫폼 기업 웹케시가 경리업무 전문 솔루션 '경리나라'의 출시 1주년을 알리며 80만 중소기업의 대표 솔루션으로 발전을 다짐했다. 웹케시는 이달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21일 웹케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경리나라 출시 1주년을 알렸다. 경리나라는 웹케시가 지난해 1월 출시한 경리업무 전문 프로그램이다. 별도 시스템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월 수수료 방식을 채택해 비용 부담이

중소 전용 경리업무 프로그램 월 5만4000원에 업무 전자화 출시 1년 만에 고객 1만 돌파 "코스닥 상장 후 日·베트남 진출"

낮은 게 특징이다. 웹케시는 "경리나라는 오직 중소기업만을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출시 1년 만에 가입 고객 1만 개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윤원수(사진) 웹케시 대표는 "경리나라를 이용해 10인 이하 기업들도 경리 업무를 전자화할 수 있게 됐다"며 "경리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나면서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경리 업무를 가족들이 도맡는 경우가 많다. 경리나라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개발됐다. 월 5만4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단순 반복 경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

윤 대표는 "중소기업들은 경리 담당자가 자주 교체돼 업무 연속성을 우려한다"며 "경리나라는 1시간 정도만 배우면 쓸 수 있게 해 아직 시에도 다른 사람이 바로 일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20~50여 곳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전국 80만 중소기업의 대표 솔루션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리나라는 영업 현황과 시세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비서 역할도 한다. 또 전국 12개 지사 100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맞춤형 서비스, 실무자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 대표는 "20년 전 IMF 외환위기가 한창일 때 웹케시를 설립했다"며 "대학의 창업 교육센터가 제공하는 7평에서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1999년 편의점 현금 자동입금출금기(ATM), 2001년 가상계좌 서비스와 기업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국내 최초로 선보여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에서 기업 간 거래(B2B) 결제 규모는 3700조 원에 달한다"며 "상거래가 웹케시를 통해 이뤄지게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B2B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웹케시는 25일 핀테크 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다. 상장을 계기로 웹케시는 올해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나심비’ 단장한 문센, 퇴근길 직장인 잡는다

〈나를 만족시키는 소비〉

〈문화센터〉

‘주 52시간 워라밸’ 소비트렌드 부상...취미에 지갑 열어 작년 롯데백 문화센터 성인강좌 수강생 7%↑ 30대 중심 홈 인테리어·피트니스 등 여가·취미 맞춤형 수업 신설

주 52시간 근무제와 나심비(나를 만족시키는 소비)가 소비트렌드로 부상하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집 꾸미기와 피트니스를 비롯한 취미활동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증가로 올봄 백화점 문화센터는 관련 강좌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이번 주부터 일제히 문화센터 봄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23일부터 봄 학기 문화센터 회원 모집을 시작한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의 지난해 수강생 수는 2017년에 비해 약 3.5% 증가했으며, 성인 강좌 수강생 수는 7%나 늘었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30대의 비중은 전체 수강생의 50%를 넘었다.

롯데백화점은 봄학기 문화센터의 테마를 봄을 상징하는 ‘플라워(Flower)’로 내세웠다. 지난해 문화센터 수강생의 남성

비율이 전년보다 약 10% 더 늘어난 데에 초점을 맞춰 남성 플로리스트와 함께하는 플라워 클래스를 내달 25일 선보인다.

봄에 맞춰 집을 새롭게 꾸미고 싶어 하는 고객들을 위해 홈 인테리어와 관련된 40여 개 강좌를 선보인다. 피트니스 강좌도 차별화한다. 3월 24일 광명점에서 인기 요가강사 이유주와 함께하는 ‘바디 밸런스 요가’ 강좌를 선보이고, 4월 14일에는 소공동 본점에서 다양한 피트니스 관련 영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강하나가 진행하는 ‘다이어트 스트레칭’ 강좌가 열린다.

신세계백화점은 24일부터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세계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트렌드 확산으로 백화점 문화센터 시간표까지 바꿨다.

신세계 아카데미에 따르면 지난 학기 2030 수강생의 비중은 20% 정도 늘었다. 백화점 문화센터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 세대에게 각



최근 백화점 문화센터 플로리스트 강좌를 신청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플라워 강좌를 듣고 있는 수강생 모습.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광받고 있어서다. 신세계는 이번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체험형 강좌 비중을 지난 학기보다 15%가량 늘렸다.

이번 학기에는 아예 신세계 아카데미 카탈로그에 ‘워라밸 플랜’을 짜서 선보인다. 마치 학교 시간표처럼 발레, 글쓰기, 일러스트 등 직장인이 좋아할 만한 수업만 골라 월·금, 주말 시간표를 큐레이팅했다.

특히 올해는 건강을 테마로 한 다양한 메디컬 수업도 처음 마련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년맞이 내장 비만 다이어트 △나잇살 해결법 △레몬밤과 허브를 이용한 내장지방 다이어트 강의 등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이슈가 커진 만큼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다스리는 가드닝 연출’ 수업도 신설했다.

현대백화점도 23일부터 봄학기 수강신청을 받는다.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겨울학기 문화센터 회원은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났다.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힘입어 평일 오후 6시 이후 강좌 수강생은 21.1%나 늘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봄학기’에 평일 6시 이후 강좌를 지난해 대비 20%가량 늘려 200여 개 정규 강좌를 개설했다. ‘운선형의 호흡발레’·‘내 몸의 밸런스 빈야사 요가’·‘EDM 요가 플라이트’ 등 헬스 관련 강좌와, ‘박주환의 통기타 교실’·‘김경희의 바이올린 클래스’ 등 음악 강좌, ‘연필로 그리는 인물화’·‘한동이 작가가 진행하는 캐릭터 그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기적으로 강좌를 듣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원데이 특가’도 전년 동기 대비 1800강좌 늘린 총 5100여 개를 개설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는 트렌드에 발맞춰 압구정본점 등 15개 점포에서 ‘댕당이 냥당이 페스티벌’을 열어 ‘반려견·반려묘 그리기’, ‘말고기 타르트 만들기’, ‘반려동물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클래스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나를 위한 소비를 중시하는 문화가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까지 바꾸고 있다”며 “개인 문화활동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수업 발굴을 위한 백화점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유희희 기자 yhh1209@

주말·공휴일 ‘티몬 상담톡’ 쉽니다

티몬이 다음달부터 주말 고객센터 상담 서비스를 중단한다. 서비스 도입 2년 만이다.

티몬은 21일 고객센터 상담시간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주말과 공휴일 ‘티몬 상담톡’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평일 상담 시간도 1시간 줄여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티몬은 2017년 1월 맞춤형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채팅 서비스인 티몬 상담톡 서비스를 시행했다. 티몬 상담톡

은 평일의 경우 9시부터 1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됐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말과 공휴일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1시간 줄인다. 다만 상담톡을 통한 문의 접수는 가능하다.

업계는 티몬의 주말 고객센터 상담 서비스 중단이 ‘주 52시간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1대1 고객상

평일 상담도 1시간 줄여 운영 업계 “주 52시간제 도입 영향”

담 서비스였던 티몬 상담톡을 운영하기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주말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몬 상담톡은 티몬 앱 속의 ‘마이 티몬’에서 티몬 상담톡을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 내역, 배송 상태, 최근 본 상품, 소핑 카드에 넣어둔 물품 문의 등 소핑 전 과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카카오프렌즈 치즈볼 4종

현대백화점이 판교점 지하 1층에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를 활용한 스낵 브랜드 ‘선데이치즈볼’ 팝업스토어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3월 14일까지 운영되는 판교점 선데이치즈볼 팝업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한정판 치즈볼 라이언 미니 지퍼백 파우치를 증정한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2030 공략” 아이돌 앞세운 장수 브랜드

장수 브랜드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젊은층 공략에 나섰다. 이들은 아이돌그룹 멤버와 이른바 ‘대세 배우’를 모델로 적극 발탁하면서 장수 브랜드에 젊은 피 수혈이 한창이다.

장수 브랜드는 오랜 역사만큼 신뢰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태되기 쉽다. 장수 브랜드들은 주 소비층의 소득 감소가 소비감

참이슬 아이린·헤라 제니·오휘 김태리 등 모델 발탁 브랜드 이미지 전환 통해 새로운 소비층 흡수 나서



레드벨벳 아이린

블랙핑크 제니

박보검

소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소비층, 즉 ‘젊은 피’ 수혈이 절실하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 주류, 뷰티 등 유통업계 전반에 젊은 20대 모델 발탁이 늘고 있다.

하이트진로 참이슬은 브랜드 모델을 5년 만에 레드벨벳 아이린으로 교체했다.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참이슬은 과거 진로 시절을 포함할 경우 95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한다. 소주 대표 브랜드다운 역사이지만 오히려 젊은층에는 울드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들어 꾸

준히 2030을 공략해 왔다. 아이린 발탁 이전에 참이슬의 간판은 5년간 아이유였다. 하이트진로는 아이린 모델 발탁 배경으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헤라도 전지현과 함께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를 투톱 모델로 새롭게 낙점했다. 헤라는 최근 전지현과 재계약한 데 이어 제니를 새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며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제니는 2월부터 헤라의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LG생활건강의 오휘도 김태리가 모델로 활동 중이다.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으로 주목받은 김태리는 클라우드 맥주 모델로도 김혜수와 투톱으로 나서기도 했다.

국내 1위 온라인몰인 G마켓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48’을 통해 탄생한 글로벌 그룹 ‘아이즈원(IZ*ONE)’을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전격 발탁했다. ‘아이즈원’은 글로벌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48’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멤버로 구성됐다. G마켓은 아이즈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가방 브랜드 썸소나이트는 젊은층 공략을 위해 론칭한 브랜드 ‘썸소나이트 레드’의 새 얼굴로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인 차은우를 선정하고 20대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코카콜라는 올해도 배우 박보검과 함께 새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박보검은 2017년부터 코카콜라 모델로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유희희 기자 yhh1209@

설 선물 트렌드 ‘가성비·가심비·프리미엄’

유통업계가 설을 앞두고 선물세트를 앞다투어 선보이는 가운데 설 선물에 반영된 소비트렌드가 눈길을 끈다.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가성비 상품부터 불황 속에서도 불티나는 프리미엄 상품까지 소비 양극화시대를 대변하는 상품의 등장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건강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건강식품 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21일부터 설 선물세트 분판매를 시작한 홈플러스는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전체의 88% 수준인 1700여 종 마련해 고객들의 선물세트 가격 부담을 낮췄다. 이마트 24는 1만~4만 원대 실속형 선물세트를 전체 물량의 70% 이상 구성했다.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가심비’를 앞세운 ‘결합상품’도 등장했다. 현대백화점은 국내산 1+등급 등심(500g), 국거리(500g)와

불고기(500g)로 구성된 ‘현대명가 명품 냉장합함세트 2호’(10만 원), 국거리 및 불고기, 장조림 1.2kg으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정육세트’(4만9900원) 등을 선보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설을 맞아 처음으로 1++등급의 한우 살치살과 시즈와가 생와사비, 와사비 강판을 함께 구성한 ‘명품 한우 살치살&와사비(65만 원)’를 선보였다.

프리미엄에 방점을 찍은 초고가 선물세트도 눈에 띈다. 롯데백화점은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 ‘L-NO.9 세트(6.5kg, 100세트)’를 135만 원에, ‘영광 범성포 굴비세트 황제(2.7kg/10미)’를 250만 원에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설을 맞아 1억 원대 수제 위스키인 발베니 몰트 마스터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역작 ‘발베니DCS’ 컬렉션을 국내 단독으로 선보였다.

박미선 기자 only@

코오롱아우토, 결손금 보전 위해 또 1682억 자본감소

OLED 사업 부진에 1400억 감자 수입차 판매 업종 전환에도 적자 코오롱, 18년간 3000억 수혈에 일각선 '비자금창구' 의혹 불거져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아우토의 모기업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 부진에 1400억 원이 훌쩍 넘는 대규모 감자를 추진한 데 이어 수입차 판매로 업종을 전환한 이후에도 적자가 누적돼 다시 한 번 1682억 원대의 감자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아우토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결손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감자 비율 96%의 자본 감소를 결정했다. 이에

코오롱아우토 실적 및 결손금 추이 (단위: 억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12.0	65.8	22.3	13.5	-	43.3	768.3	139.0
영업이익	-160.0	-160.9	-224.6	-250.3	-	-0.5	-76.8	-110.6
순이익	-170.7	-189.8	-247.8	-268.1	-216.9	-502.4	-53.6	-7.1
자본금	276.6	415.2	600.2	895.4	1064.2	1434.2	1712.7	1712.7
결손금	-155.4	-355.4	-610.6	-872.2	-1093.4	-1585.6	-1642.2	-1648.1
자본총계	417.2	389.4	318.3	350.5	297.2	173.3	393.8	387.8

따라 자본금은 175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발행 주식수는 3505만3068주에서 140만2119주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공장 건물과 토지 등 일체를 125억 원에 처분하는 결정도 내렸다. 코오롱아우토는 코오롱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이 지분 99.3%를 갖고 있다. 전신은 OLED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네오뷰코오롱이다. 코오롱은 과거 2001년

사업 다각화를 위해 OLED 기업인 네오뷰를 인수하고 네오뷰코오롱을 출범했다. 그러나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코오롱그룹에 편입된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2004년까지는 매출이 전무했으며 이후에도 발생 규모는 수십억 원에서 200억 원대 안팎에 그쳤다. 매출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것에 반해 판권비 지출이 커 매년 영업 및 순손실을 기록했고

결손금이 쌓여만 갔다. 현재의 수입차 업체로 업종을 바꾸기 전인 2008~2014년까지 기록한 누적 영업손실과 순손실 규모만 각각 1153억 원, 1499억 원에 달한다. 코오롱그룹은 네오뷰코오롱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꾸준히 자금 지원을 했다. 2003년 400억 원을 시작으로, 2004년 500억 원, 2007년 300억 원 등 지난해(40억 원)까지 수혈한 자금은 3000억 원을 넘는다. 또 2009년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감소를 시행해 1439억 원의 결손금을 털어냈으며 그 손실은 고스란히 그룹의 부담으로 남았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자금의 지출처가 인건비, 기타 비용 등 불분명한 데다 사실상 부실기업에 무리하게 지원한 것을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

다. 누적되는 손실을 견디지 못한 코오롱그룹은 결국 2015년 8월 참존모터스로부터 아우디, 폭스바겐 판권을 인수하고 네오뷰코오롱을 현재의 코오롱아우토로 사명을 바꾸며 공식 딜러사로서 재기에 나섰다. 코오롱아우토는 OLED 사업 전개 당시보다 적자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실적은 좀체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2015~2016년 발생한 매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 과정 중 서류를 위조한 사실 등도 악재가 됐다. 2016년 매출 76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올렸지만 2017년 139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영업손실도 2016년 76억 원에서 이듬해 110억 원으로 커졌다. 2017년 말 기준 결손금은 1648억 원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중소특화’ 증권사도 안 됐는데... 전문 IB 될까

정부, 중소·벤처 자금조달 활성화 전문 투자중개사 연내 도입키로 업계 “시장 구조상 효과 없을 것”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앞서 도입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도 실적이 미미한 와중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권용원(오른쪽 두번째) 금융투자협회장,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천 검단산 업단지를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중기전문 투자중개사의 자기자본 요건은 투자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 원이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최소 2명이면 영업을 가능하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요 업무는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가치평가 등이다. 이용 대상은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중기전문 투자중개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패할 것

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증권사 안팎에서는 소수 대형사가 시장을 점유한 구조상 이번 조치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자 2016년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형 증권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5월에는 2기 증권사로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6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공개(IPO)나 펀드모집 실적은 미미하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기특화 증권사의 IPO 주관 건수는 지난해 IBK 4건, 유진·유안타·SK 각 2건 등에 그쳤다. 이정필 기자 roman@이주혜 기자 winjh@

“나비젠·디코이바이오·독일 메디진 JP모건 헬스케어서 기술수출 논의”

CEO 인터뷰

이훈모 티와이바이오 대표

동양네트웍스가 계열사 신약 치료제 기술 수출 및 추가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 투자 부문 자회사인 TY바이오가 최근 ‘2018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석한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훈모(사진) 대표는 20일 서울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박테리아를 활용한 항암 백신을 개발하는 디코이바이오는 뛰어난 범용성 및 타 항암 요법과의 시너지를 보이는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며 “다수의 국내외 제약사와 생산적인 미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라이선싱 아웃이나 공동연구 등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신약 치료제 기술 수출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고 있는 이훈모 TY바이오 대표이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회사사 독일 메디진(TCR-T 면역항암백신 개발기업), 2대 주주로 있는 나비젠(HIV 치료제 개발)과 디



동양네트웍스, 계열사 신약 치료제 국내외 제약사와 생산적 미팅 진행

코이(박테리아 활용 면역항암 백신 개발 기업)의 주요 임직원과 참여했다. 현장에선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계열사 중 한 곳이 이르면 1분기 내 구체적인 기술수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비젠은 1분기 내로 진행될 예정인 임상 1상 진입에 대한 최종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임상 1상 진입과 관련한 후속 투자 유치 논의가 다수의 펀드와 진행됐다.

동양네트웍스는 동아ST, 서울 아산병원과 진행할 예정인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 알리기에 주력했다. 고희민 기자 kj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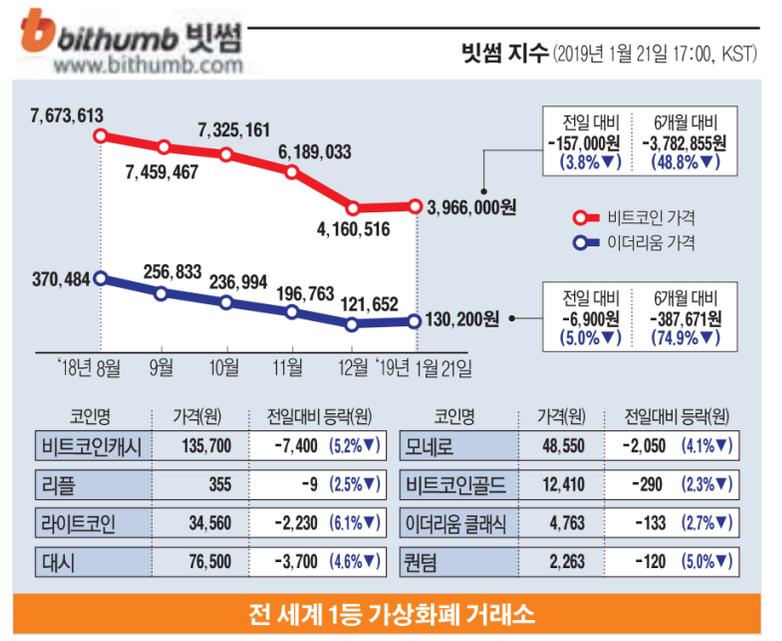
증시 반등에...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 회복세

시중 자금 한 달새 1.2兆 몰려 해외·채권형 펀드보다 성적 좋아 ETF ‘미래에셋...’ 17.3% 최고

국내 주식형펀드가 최근 주가 반등에 힘입어 수익률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 원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 900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4.53%를 기록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주식형 펀드 기준으로 4.14%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3.83%)나

국내 채권형 펀드(0.13%), 해외 채권형 펀드(0.72%)의 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성적이다. 펀드 상품별로 보면 ETF 상품인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이 17.34%에 달해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ETF에 재간접 투자하는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이 11.05%의 수익률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ETF 상품인 한국투자KIN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10.40%)와 키움KOSF20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10.30%)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시중 자금도 국내 주식형 펀

드에 몰려 설정액이 최근 한 달간 1조 2865억 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3099억 원이 유입됐다. 상품별로는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에 가장 많은 157억 원이 유입돼 국내 주식형 펀드 중 가장 큰 금액이 들어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형 펀드는 글로벌 증시 침체에 따라 줄줄이 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지난 1년 평균 수익률은 -18.18%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국의 경기 부양책,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등에 힘입어 최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도 수익률을 회복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캔서롭, 국내 첫 GMP 인증 세포치료제 생산시설 구축

10월 완공... 명지병원과 면역 항암세포치료제 개발

캔서롭이 국내 최초로 병원 내 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에 부합한 세포치료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올해 10월 구축할 예정이며, 설치 장소는 명지병원이다.

캔서롭은 면역세포치료제 전문 회사 엠제이셀바이오, 협력기관 명지병원과 공동으로 차세대 면역 항암 세포치료제를 개발키로 했으며 GMP 설비에서 세포치료제 신약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21일 "10월까지 경기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 세포치료제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해당 설비는 GMP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시설이 완공되고 허가까지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설비 완공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며 "현재 시설 공간은 확보한 상태이며, 관련 설비만 구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엠제이셀바이오는 캔서롭이 지난해 4월 100%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유전자 검사와 검사장비 개발 업체로, 최근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PA(Protective Antigen, 감염방어항원)를 이용한 CAR-T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명지병원 내 GMP 설비는 엠제이셀바이오에서 개발하는 CAR-T 세포

캔서롭 주가 추이 (단위: 원)



치료제 생산을 비롯해 앞으로 진행되는 NK 세포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

우선 계획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생존율이 낮은 폐암 치료를 표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한다.

중장기 계획은 기존 1·2세대보다 효능이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범용 3세대 CAR-T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편 CAR-T 세포 치료제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T세포를 조작해 암을 공격하도록 만든 치료제다. 해당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찾아 공격한다.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바이러스 등을 이용해 암세포에 반응하는 수용체 DNA를 T세포에 주입하고 증식시켜 몸안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정상 세포 손상은 줄이고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종민 기자 kjm@

“이차전지 장비 中 수요 폭발적 증가”

기업탐방

EMPLERUS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면서 이차전지 장비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 청주 신공장을 준공하고 생산인력도 두 배로 늘린 만큼 올해는 매출처 다변화와 생산능력(캐파) 제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8일 방문한 충북 청주 옥산면 엠플러스 신공장에서는 이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제작이 한창이었다. 사전 주문을 받아 생산 중인 약 100m 상당의 완전체 장비가 최종 검수와 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채 시험가동 중이었다. 한국과 중국 등 각기 다른 발주처들로 납품되는 레일이 5개가 넘었다.

김중성 엠플러스 대표가 청주 신공장 건립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밀려드는 국내외 이차전지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주 1공장 캐파는 연간 약 1000억 원으로 수주잔고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수원 연구개발(R&D) 센터와 거리가 멀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엠플러스 청주 2공장 전경. 사진제공 엠플러스

93억 들여 청주2공장 준공

생산인력도 2배 가까이 늘려

올 매출 다변화 생산능력 제고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93억 원을 투자해 1만㎡ 이상의 청주 2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했다. 본사 소재지도 이전했다. 기존의 1공장과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둘 정도로 지척 거리다. 공장 임직원들이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회사의 주력제품은 이차전지 파워치형 전지자동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조립공

정 장비다. 노칭기부터 스테킹기, 탭웰딩기, 패키징기, 디캐싱기 제조 공정이 모두 가능한 국내 유일의 ‘턴키’ 가능 기업이다.

공정의 핵심요소인 인력도 신규 채용을 통해 큰 폭으로 늘렸다. 실제 2017년 말 88명에 그쳤던 직원 수는 지난해 9월 말 116명으로 30명 가까이 늘었다. 작년 말에도 추가 충원을 통해 인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했다.

김중성 대표는 “이차전지 자동차화 공정설비는 전량 주문 제작돼 수주부터 대금 납입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매출 인식이 이연돼 회계상 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해소는) 시간 문제다. 매출보다 수주잔고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 주면 좋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전방위 사업체인 중국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 정부가 기업을 정리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수주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상황”이라며 “우리 입장에서선 육석가리기를 할 필요 없이 우량기업을 고객사로 맞이할 수 있어 호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新사업 ‘바이오’ 기존 사업과 시너지 기대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한국코퍼레이션

공공기관·통신·금융·자동차·의료 등 관련 기업의 CRM(고객관리시스템) 대행 사업을 운영해온 한국코퍼레이션이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선택했다. 지난해 시장 진출을 위해 계놈바이오로직스 아시아 퍼시픽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AI(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개인 맞춤형 의약품 등 특수 신약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오 사업 진출 이유는?

“기존 사업은 CRM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다. CRM 사업과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질개발은 유사성이 있어 두 사업을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을 운영해 오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 건강과 관련한 빅데이터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했다.”

-계놈바이오로직스 아시아퍼시픽은 어떤 회사인가?

“2006년 설립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가 있는 계놈바이오로직스는 빅데이터·AI 기술을 적용해 신속한 발굴과 정확한 검증이 신약 개발 특화를 보유한 회사다. 존슨앤존슨, 바이엘 등 다국적 제약사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 판매총판을 담당하는 아시아퍼시픽은 치료 효과 예측과 치료 적용·임상 시험 최적화에 탁월한 본사의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계놈의 아시아 총판만

한국코퍼레이션 주가 추이 (단위: 원)



지난해 ‘계놈바이오로직스’ 인수 빅데이터·AI 활용 특수신약 개발

담당하는 아시아퍼시픽 지분 100%를 인수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물질에 대해 계놈과 아시아퍼시픽이 50%씩의 권리를 갖고 있다.”

-바이오 사업에 대한 향후 기대는?

“계놈 본사와 아시아퍼시픽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심근질환 치료제 ‘GEN121’의 현재 개발 단계는 전임상을 마치고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다. GEN121은 바이오 신약 임상 시험에 대해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한 유럽의 벨기에나 독일 중 한 곳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2년 안에 임상 1·2상을 동시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GEN121 개발은 AI와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다. 계놈사의 RNA 간섭(RNAi) 기술은 유전자의 전사·투과 과정을 차단해 유해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아시아퍼시픽은 기존 의학, 약학, 유전자학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나이, 인종, 성별, 개인별 유전형질에 따른 맞춤형 심근질환 치료제 개발이 목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티레이더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제 제18-01051호(2018.03.06 ~2019.03.05)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공시가 현실화에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9·13 대책 통해 공시가 9억 원 넘는 주택 주담대 금지
정부 집값 상승분 반영...서울지역 대출제한 주택 늘어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제한되는 주택이 급증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똥똥한 채' 흐름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걸 막고자 정부가 취한 정책이다. 실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비교적 비인기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인기지역 주택 하나만 소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가 투자 수요에 가세하는 걸 막고자 규제지역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단,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이 허용된다. 무주택자는 2년 내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도 공시가 5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에 그쳐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선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시세로 13억 원 이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출받아 사려면 세입자에게 2년 안에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대출 규제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내년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만1060호에 불과했던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수는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16만3501호로 급증했다.

게다가 정부가 집값 상승분만큼 시세를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내년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증가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건수 등 규제 강화'가 꼽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서울 집값 약세는 세금 규제보다 대출 제한의 힘이 크다"며 "자기 자본으로 전부 사긴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막아버리면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집값 잡겠다고 文 정부 출범 후 아파트값 30%↑

〈서울 중위매매가격〉

2017년 5월 5억2996만 원서
지난해 말 6억8749만 원으로
실수요자 주택구입부담 늘어
"투기 잡으려다 시장 급랭 우려"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사는 정부가 부동산 조정 기준을 현 정부 출범 시기로 잡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 출범 시기 당시 부동산 시장은 현재(2018년 12월 기준)와 사뭇 다르다.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보면 1년 8개월 사이 가격은 30% 이상 올랐지만 거래는 뜸해졌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2017년 5월 5억2996만 3000원에서 작년 말 6억8749만 1000원으로 29.7% 뛰었다. 같은 기간 강북지역은 3억9711만 1000원에서 5억1288만 7000원으로 29.2% 올랐고, 강남지역은 6억4003만 1000원에서 8억3484만 1000원으로 30.4% 급등했다.

반면 시장의 활기는 사라지고 부담은 커졌다. 거래의 활발함 정도를 보는 KB부동산의 매매거래지수를 보면 서울의 2017년 5월 매매거래지수는 37.1이었다. 같은 해 6·7월의 지수도 각각 53.8, 35.8로 높았다. 그러나 최근(2018년 12월 기준) 매매거래지수는 1.8로 곤두박질쳤다.

아파트 구입 부담도 커졌다. KB부동산이 KB국민은행 대출거래자 정보로 집계한 'KB아파트 PIR' 지수를 보면 2017년에는 분기별로 8.8~9.4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년 3분기에 10.1배를 기록했다. PIR는 자가 가구의 주택 구입 가능성 수치로, 높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2017년 3분기와 2018년 3분기를 비교하면 가구소득(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자의 연소득 중위값)은 5395만 원에서 4684만 원으로 13% 빠졌다. 집값(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실행 시 조사된 담보평가)은 같은 기간 4억7000만 원에서 4억7500만 원으로 1% 올랐다. 가구소득은 줄었지만 주택가격은 오르면서 주택구입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단위: 원) ○ 증감률

2017년 5월	5억2996만3000
강북	3억9711만000
강남	6억4003만000
2018년 12월	6억8749만000
강북	5억1288만7000
강남	8억3484만000

※출처: 한국감정원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실수요자들의 거래 심리까지 둔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2017년 5월 수준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30% 빠지면 지방은 폭발할 것"이라며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시기의 과거를 기준으로) 정책 목표를 잡는 순간 지방은 높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지방은 오르고, 서울 부동산만 하락하는 상황은 지금 상상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거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급매물도 소화가 안 되는 시장이 되면 소프트랜딩이 아니라 하드랜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심리와 공급,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단순히 투기수요를 잡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정상수요까지 냉각시키는 것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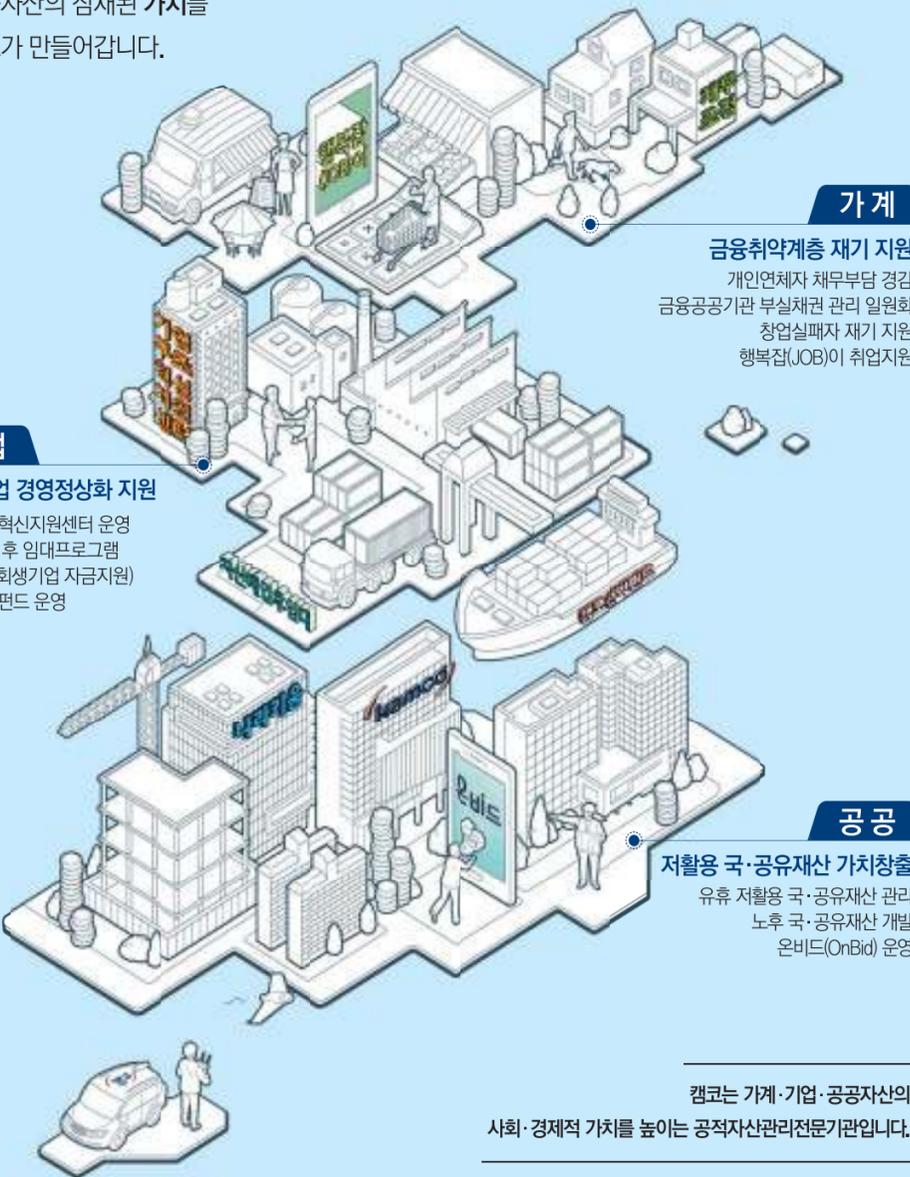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 이상의 가격 변동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오르는 것도 단기간 급등이 문제인 것처럼 내려가는 것도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향을 끌어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조합장 해임 무산된 반포 3주구, 새 시공사 선정 속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성사되지 않았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 3주구 재건축조합은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총회 개최를 위해선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인 812명 넘게 참석해야 하지만 270여 명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 문제와 최종기 조합장 거취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원 상당수는 HDC현산의 시공사 선정 취소를 주장하며 7일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면 일부 조합원은 최 조합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20일 임시총회를 추진했

다. 그러나 총회는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3주구 새 시공사 선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은 10일과 20일 시공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8개 건설사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반포 3주구 재건축 수주에 관심을 보이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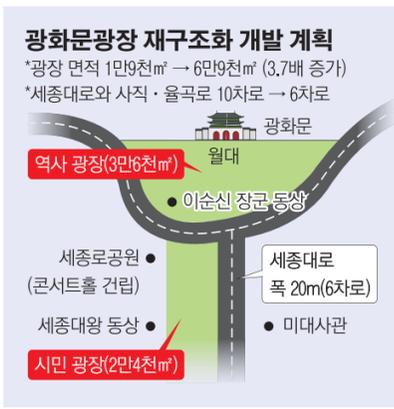
반포 3주구는 1490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087억 원으로 서초 일대 재건축 단지가 시공사 선정을 마치면서 강남권에 남은 알짜 사업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광화문광장 3.7배 넓어진다

서울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

2021년 광화문광장 청사진
지하 GTX A노선 복합역사
휴식·문화·체험공간으로 채워



광화문광장이 2021년 교통, 가로환경, 역사문화 등을 아우르는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가 광장으로 편입돼 광장 규모가 3.7배로 확장되고, 해치광장 등 세 곳으로 단절돼 있던 지하공간은 하나로 통합돼 또 다른 광장이 생긴다.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고속도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Deep Surface)'를 21일 발표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기본 방향은 역사성, 시민성, 보행성 회복이다.

지상은 '비움', 지하는 '채움'이라는 구상에 따라 경복궁 전면에 약 3만6000㎡ 규모의 '역사광장', 남쪽에 약 2만4000㎡ 규모의 '시민광장'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을 세종문화회관 옆과 옛 삼군부 터(정부종합청

사 앞)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지하 광장은 콘서트, 전시회 같은 문화 이벤트가 연중 열리는 휴식·문화·교육·체험 공간으로 채워진다. 지상과 지하는 선로공간으로 연결되며 이는 지하철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현재 교통섬 같은 광화문광장이 주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돼 시민의 일상 공간을 회복하고 역사 도시 서울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한다.

세종대로 일대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특히 파주 운정-서울-화성 동단의 GTX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추진한다. GTX A 노선이 정착하는 강남 지역의 '영동대로 복합역사' 개발과 발맞춰 강남-북간 도심 연결축을 강화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앞당긴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GTX A노선에 광화문역을 추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서울시는 이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용산-고양 삼승) 등 광역철도 노선도 추가 정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즉 지하보도로 연결되는 광화문역-시정

역에 GTX A,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지하철 1·2·5호선 등 총 5개 노선이 환승하는 대규모 복합역사가 완성된다. 이밖에 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구 '의정부' 터 발굴을 연내 마무리하고, 세종문화회관 일대는 클래식 콘서트홀 등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된다.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을 올 연말까지 재정비해 복촌, 서촌, 사직동, 정동, 청계천 등 역사도심 공간을 광화문 중심으로 재편한다. 광장을 중심으로 도심 지하공간을 연결해 보행권을 확대한다. 광화문-시정-을지로-동대문에 이르는 4km 구간에 단절 없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김진희 기자 jh6945@



"고졸 취업자의 꿈 지켜줄게요" 유은혜(오른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경기 부천시 신광오펀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고졸취업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 산업계, 교육계가 협력해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뉴시스

대법, '15년 미제' 부산 여성 살인사건 원심 뒤집어 "간접증거만으로 범죄 증명 안돼"

공범진술 의문...제3자 가능성 제기

15년간 미제로 남았던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7년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씨는 2002년 5월 21일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범행 다음 날 은행에서 A 씨의 통장에 든 296만 원을 인출하고,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적금을 해지해 현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 씨의 시신을 마대자루로 옮길 때 같이 있었던 공범 손모 씨의 진술과 부검감정서 등의 간접증거로 공소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시민의 제보로 양 씨가 불

잡하면서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하급심과 달리 간접증거와 정황들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진범이 제3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을 해지한 점, 손 씨가 피고인과 함께 마대자루를 옮긴 점, 피고인의 당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사실이 증명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 씨의 살인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손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한적이고, 사망 일시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답변, 부검 결과 나온 알코올 농도 등에 대한 심리가 미흡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이 대법원에 접수돼 있으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검토를 요한다"는 점도 밝혀냈다. "원심판결에는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장효진 기자 js62@

'이부진·임우재 이혼' 항소심 내달 26일 재개

임우재 주장 수용해 재판부 변경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 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로 바뀌었다. 재판부 변경 후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 변경에는 임 전 고문의 입장이 반

영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 강 부장판사가 장총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한 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대해 항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짹짹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짹짹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짹짹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되는 도시 'K-시티'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국내 최초 도시형 자율주행장

“왼편에 보시면 시가지 건물 형상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건물 아래에 레일이 깔려 있어요. 이게 가상건물을 도로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반대로 바깥쪽을 들어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건물 표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다는 거죠.”

18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 'K-City(K-시티)'를 찾았다. 허허벌판에 들어선 시험장에는 극장과 음식점, 우체국 등 다양한 입간판을 단 가상의 건물이 늘어서 있다. 마치 작은 도시를 연상케 했다.

K-시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다양한 안전장비 실험을 위해 만들었다. 교차로와 주차 공간은 물론 버스정류장과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고속도로, 터널까지 갖추고 있다. 가상도시이지만 도로와 진입로, 톨게이트 등은 실제와 동일하게 세웠다.

◇5G 통신망 갖춘 세계 최대 규모 실증 시험장 = 첨단 자동차 기술은 우리 곁에 다가오기 전, 다양한 실차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율주행차 역시 실제 도로 상황과 동일한 가상의 도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시험 단계를 거치는 중이다. 조만간 우리 곁에 등장할 자율주행차 기술이 반드시 이곳 K-시티를 거치는 셈이다.

2017년 8월에 착공한 K-시티는 4개월여 만인 지난해 초 5G 통신망을 구축했고, 12월에 전 구간을 개통했다. 부지 규모만 36만㎡(약 11만 평)에 건설 예산만 125억 원이 들었다.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2015년 미국 미시간대학에 들어선 M-시티다. 실제 M-시티에는 무인자동차가 서늘로 운행된다. 이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쌓는 중이다. 다만 3세대 통신을 바탕으로 시가지 운행(최대 실험시속 72km)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K-시티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물론, 도심과 스쿨존, 국도, 자율 주차공간 등 5가지 종합 환경평가를 치를 수 있다. 4G LTE는 물론 5G통신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건설 비용은 양쪽이 비



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증도시 K-시티 교차로의 모습. 실제 가상도심을 재현해 자율주행차의 다양한 시험주행 환경을 만들었다. 2 긴급제동장치(AEB)를 장착한 볼보 XC400i 가상의 장애물(빌런 더미) 앞에 스스로 정확하게 멈춰 섰다. 3 K-시티는 도심과 외곽도로, 고속도로 등 다양한 주행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향후 약천후와 전파교란 지역 등 갖가지 환경까지 염두에 두고 고도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터널을 빠져나온 자율주행시험차들의 모습. 김준형 기자 junior@연합뉴스

경기도 화성 36만㎡ 규모로 터널·고속도로·교차로 갖춰 실제 도로 상황 그대로 재현

폭우·폭설·5G 전파 차단 등 2022년까지 악조건 고도화

숫자지만 시험장 규모는 K-시티가 3배 가까이 크다.

시험 구간도 14곳이나 된다. 다양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데 관심은 이제 막 상용화가 시작된 5G에 몰려 있다.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홍윤석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자율주행실장은 “실제 자율주행 시험에 필요한 것을 영국, 스위스 등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구현한 것으로, 세계 최고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실제 도심과 비슷한 모양새에 “야간 자율주행 실험도 가능하냐”고 물으니 공단

관계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향후 폭우와 폭설을 포함해 야간 테스트까지 치를 수 있도록 K-시티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속도로와 톨게이트, 터널도 재현 = K-시티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차 공간을 똑같이 재현한 자율주차 시험 공간이 나온다. 직각주차, 평행주차는 물론, 약 45도로 진입하는 사선주차까지 실험할 수 있다. 한편에는 낮은 언덕을 도로포장했는데 마치 오르막 평행주차까지 실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

다음 코스는 스쿨존이다. ‘안전초등학교’라고 이름 지어진 작은 건물 주변에 어린이 보행 안전구역이 설정돼 있다. 자율주행차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시험할 수 있다.

뒤이어 회전교차로를 만난다.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차량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한다. 이곳 도심 교차로 구간은 컨테이너 건물들이 실제 모습과 유사하게 늘어서 있

었다. 특이한 것은 상황에 따라 건물을 도로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고, 거꾸로 도로 쪽으로 당겨놓을 수도 있다는 것. 건물 외벽도 실제와 동일하게 유리 또는 불투명 외벽으로 꾸몄다.

K-시티를 가로지르면 고속주행 구간이 나온다. 시속 100-120km 속도로 진입이 가능한지 시험할 수 있다. 진입로 오른쪽에는 5G 통신 기지국이 존재해 주행차와 진입차 사이의 통신을 담당한다.

톨게이트도 실제와 동일하다. 진출입로 통과, 하이패스 인식 등에 대한 반복 시험도 가능했다. 완만한 고속도로 회전 구간을 통과하자 저 멀리 터널이 나온다. 자율주행차는 터널에 진입했을 때 갖가지 변수와 만나게 된다. 이러한 변수를 미리 확인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든 구간이다. 현재는 밝음·어두움에 따른 센서 변화를 테스트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향후 터널 안 통신설비까지 갖출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310억 원 추가 투입해 가상의 기상 상황 구현 =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K-시티 시험시설 고도화를 위해 총 31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도로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폭우와 폭설 등 악천후 상황도 재현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전파차단이나 전파교란 등 갖가지 통신 상황과 사각지대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도시’답지만 앞으로 더 도시다워진다는 뜻이다.

홍윤석 자율주행실장은 “K-시티는 테스트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혁신성장 지원센터도 설치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기술개발 인큐베이팅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자동차 관련 예산만 1조 원 넘게 책정한 상태다. 관련 규제도 선제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인 만큼 향후 K-시티를 통한 자율주행차 개발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준공식을 통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자율주행차로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줄이겠다”면서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K-시티 인접지역에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전자 핸들 고장 나면 예비 핸들 ON...모비스, 자율주행 '이중 안전'

'듀얼 모드' 내년 양산 목표 핸들·에어백·브레이크 등 보조 센서 갖춰 비상시 대비

자율주행차가 발달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안전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현대모비스(모비스)의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듀얼 모드'다.

최근 모비스가 밤잠을 줄여가며 개발 중인 대표적인 듀얼 모드 기술은 '조향 안전장치'다. 요즘 자동차 핸들(스티어링 휠)은 전통적인 유압식 대신, 전기모터를 바탕으로 돌아간다. 유압식은 자동차 엔진의 힘을 빌려 쓰는 만큼 연비와 출력에서 미세하게나마 손해를 본다. 무겁고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전동식 조향장치는 전기모터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연비와 출력에서 손해



듀얼 모드를 적용한 모비스 전동식 조향장치.

볼 일이 없고, 제조단가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자질한 노면 진동까지 걸러내 승차감도 우수하다. 현대모비스는 MDPS (Motor Driven Power Steering)라고

부르고 메이커에 따라 EPS(Electric Power Steering)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전동식 핸들의 가장 큰 장점은 능동적으

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센서값 또는 전기 신호에 따라 자동차 스스로 핸들을 돌릴 수 있다. 자동주차 또는 자율주행차에 필수요소인 셈이다.

문제는 전자장비인 만큼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비스는 이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핸들링이 가능하도록 '듀얼 모드' 제어방식을 개발 중이다.

원리는 하나의 조향장치 안에 두 개의 전자회로를 심어 넣는 방식이다. 하나가 고장 나면 나머지 회로가 정상으로 작동해 안정적으로 조향할 수 있다. 이 장비는 스위치처럼 움직이는데 한쪽을 누르면 반대편이 솟아올라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모비스가 2020년 양산을 목표로 막바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 아직 양산 사례가 없는 모비스가 자체적으로 개발

한 새 기술이다.

에어백과 브레이크 역시 이중 센서다. 에어백은 충돌 사고 승객의 부상을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다. 에어백 안에는 ACU(Airbag Control Unit)라는 두뇌가 존재한다. 충돌 또는 충돌로 인한 신호를 분석하고 에어백 전개 여부를 결정한다. 모비스의 ACU는 그 안에 또 다른 ACU를 심었다는 게 특징이다. 충돌센서와 ACU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이중으로 갖춰진 또 다른 센서가 곧바로 개입해 에어백을 정상 작동하게끔 돕는다.

브레이크 역시 이중 안전장비를 바탕으로 더욱 명민해졌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사로밀림방지장치 HAC다. 언덕에서 이상 밀림현상을 감지하면 자동차 스스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곧바로 작동해 차를 세운다.

김준형 기자 junior@

“돈 필요한 ‘데스밸리’ 구간 기업 지원 더 늘려야”

〈창업 후 3~7년 자금난 겪는 시기〉



김정태 메인비즈니스협회장



김정태 회장은 1952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90년부터 액체연료 유통·도매 전문기업인 대림석유(전북 전주 소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행정학 박사인 김 회장은 대학의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한국석유유통협회 이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 등을 지냈다.

‘데스밸리(Death valley)’.
창업 3년 내 신생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창업 후 기업은 보통 자금조달, 시장진입 등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통상 3~7년 차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창업 3년 안에 10곳 중 7곳이 폐업할 만큼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정도다. 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폐업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21일 전북 전주의 대림석유 사무실에서 만난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니스협회) 회장(대림석유 대표)은 정부가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통과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데스밸리를 잘 넘길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업 10곳 중 7곳 3년 내 자금난 위기 넘겨야 중견기업으로 성장
정부, 창업기업수 확대에만 집중
신보 창업 5년 지나면 지원 중단

◇창업만큼 중견기업 육성도 중요하다 = 김 회장은 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스타트업 기업 수를 늘리는데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스타트업들을 기업 생태계에서 내실과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보다 청년들에게 창업을 유도하는 데만 골몰해 눈에 보이는 기업 숫자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 정책이 창업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 스케일업(기업성장) 쪽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스케일업 보증의 한도를 줄여 창업지원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유망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도 스케일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라고 김 회장은 꼽았다. 기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이 필요한데 이때 오히려 정부는 각종 지원들을 다 끊어버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창업한 지 5년 지났다고 신보에서도 보증을 그만두고 하면 안정감있게 갈 수 있는 기업도 흔들려 버린다”며 “창업보다는 스케일업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런 시기에 오히려 돈을 삭가져가 버릴 정도로 제도적 지원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임기 내에 경영혁신촉진법 통과시킬 것 = 김 회장은 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은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들을 위한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말 메인비즈니스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경영혁신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경영혁신 전문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이 기반이 된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을 아우르는 것이 기업 생태계”이며 “이를 다 관찰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기술 위주 벤처창업에만 주력하다 보니 1만7600개 회원사로 구성된 메인비즈니스의 법적인 존립 근거도 기술혁신법 15조2항 하나뿐인 게 현실이다”라고 아쉬워했다.

김 회장은 “탄탄한 기업환경을 만들려면

벤처·스타트업 위한 법률 있지만
스케일업 필요 기업 지원엔 취약
‘경영혁신촉진법’ 최우선 과제로
세무당국 규제완화 노력도 절실

특별법이 한시적으로나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원 입법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목표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임기가 끝나는 2020년 2월 전에는 무조건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

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세무당국 변화 절실 = 김 회장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하는 곳으로 금융권을 꼽았다. 김 회장은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기업이 자금을 대출하려면 금융기관에서는 연대보증과 담보제공부터 요구하는 게 기본”이라며 “금융인들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에만 급급한 보수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세무당국의 환골탈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기업의 자금관리가 많이 투명해졌지만 아직도 세무당국은 규제를 늦추지 않는 후진국형 행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모든 기관이 기업인들

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관리 감시 감독기관이 아닌 기업인들을 도와주는 지원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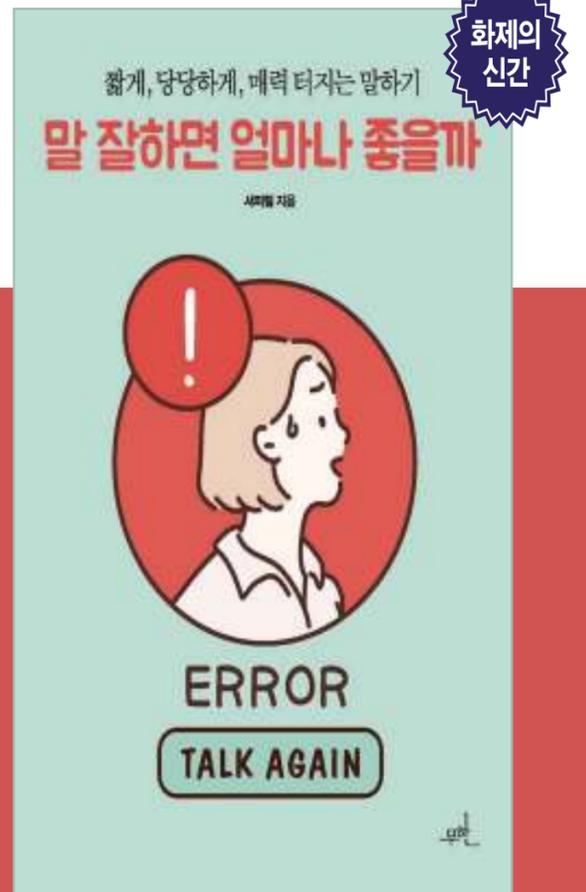
◇굿모닝 CEO 학습 확대할 것 = 김 회장은 올해 협회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굿모닝 CEO학습’의 확대를 꼽았다. 굿모닝 CEO학습은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 메인비즈니스가 매달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84회 개최됐다. 새벽 6시 40분부터 시작하지만 참석자가 매회 500명을 넘을 정도로 성황이다. 김 회장은 “올해는 기업경영자뿐 아니라 기업관계자나 직원들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임기훈 기자 shagger1207@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대한제국의 '대한'과 '국민'이 주인이란 뜻을 합쳐 대한민국이라 하시지요

1919년,
이역만리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감시를 피해
3만리의 길을 옮겨 다니면서도

조국 독립을 희망하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그날의 정신을 이어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희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Hope Together.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100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신한금융그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애국 열사들을 되새기고, 100년 전 그들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919. 4. 11 - 1945. 8. 15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수립했던 임시정부.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전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독립정신을 집약하여 우리 민족이 주권국민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또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하였다. 1945년 8·15광복까지 27년 동안 상해를 비롯한 중국 각처 3만리 길을 떠돌며 한국인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다.

(자료제공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사내벤처는 모기업 혁신창구... 일자리 창출 모델”

‘C&D 팩토리’ 출범...유시완 하나금융티아이 대표

임직원 아이디어 지원받아 ‘씨닷츠’ ‘씨씨기부’ 2개 선발 기업가 정신 함양·창업 도전 기회...내년에도 2~3개 추가

“기업은 끊임없는 성장과 혁신으로 일 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유시완 하나금융티아이 대표는 21일 사내벤처 ‘C&D 팩토리(Factory)’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C&D 팩토리는 하나금융그룹 내 IT전문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의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유 대표는 “모기업과 그룹사의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조직 중심의 혁신 활동이 제도를 통해 개인의 중심 업무 목표로 이어져 자발적 참여와 개방형 혁신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내벤처를 발굴하고 모기업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해 지원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으로 육성

하는 사내벤처제도는 모기업의 혁신창구”라며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특히 이번 선정된 업체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데이터 전송 플랫폼 ‘씨닷츠’와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씨씨기부’이다. 두 벤처팀은 앞으로 최대 12개월간의 전문적인 육성 기간을 거쳐 사업화 및 분사를 확정한다. 유 대표는 “‘씨씨기부’와 같이 사회문제와 관련된 소셜 벤처는 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씨닷츠의 경우 2년간 자발적 학습조직(CoP)의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진 사례다. 하나금융티아이 관계자는 “아이템의 시장성 등 여러 평가 요소를 감안해 선정하게 됐다”며 “개발하고자 하는 위폐 감별기의 경우 은행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아이



하나금융그룹은 18일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사내 벤처 출범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권길주 하나금융 CIO 부사장, 유시완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박광수 사내벤처팀 대표, 정연호 사내벤처팀 대표, 김용민 인라이프벤처스 대표, 금동우 드림플러스 센터장, 김정환 하나금융티아이 부사장.

템으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내벤처팀은 내년에도 2~3개 팀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등 주요 그룹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1개 사내벤처팀당 2억 원 내외로 분사 전 사업화 기간 참여 직원 급여와 복리 후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곽진산 기자 jinsan@

CBRE코리아, 임동수 대표 선임

종합 상업용부동산 서비스기업인 CBRE는 CBRE코리아의 임동수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대표는 미국 ITT 쉐라톤에서 근무했고 귀국 후 호텔신라, KAA(Korea Asset Advisors) 등에서 활동하다 2005년 CBRE에 합류했다. 앞으로 부동산 매입, 매각과 임대에 대한 자문, 자산관리, 가치평가 등 모든 자문 거래 비즈니스와 조직 경영관리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야놀자 오프라인부문 대표 김진정

야놀자가 호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부문에 김진정 신임 대표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야놀자에 새로 합류한 김 오프라인 부문 대표는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 20여 년간 운영과 영업, 마케팅을 주로 담당해왔다.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약 18년간 근무하며 운영총괄 자리에 올랐고, 테슬라코리아에서는 초대 대표를 지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공동모금회에 30억 전달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임직원들의 참여로 조성한 행복나눔기금 30억 원을 경기·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다고 21일 밝혔다.

행복나눔기금은 SK하이닉스가 2011년부터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해온 기금으로, 임직원의 기부와 회사가 매칭 그랜트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15억 원에 회사 측 15억 원을 더해 총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기탁금액은 총 195억 원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행복나눔기금을 이용한 사업을 기존 이천·청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진제약 의사사진전 최고작품상 검단탑병원 임성룡 과장의 ‘가족’

삼진제약은 제15회 사랑나눔 의사사진 공모전에서 인천 검단탑병원 임성룡 신경외과장이 최고작품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랑나눔 의사사진 공모전은 의료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고 난치병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사회공헌으로 2010년부터 9년째 이어오고 있다.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진전은 총 443개 작품이 출품됐다. 사진전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은 희귀난치성 질병인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11세 환아 가족에게 지난달 13일 전달돼 치료비로 활용된다.

최고작품상에 선정된 ‘가족’은 휴가 때 가족과 함께 방문한 옛 한옥에서 찍은 사진으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기록하고 싶은 의미를 담았다. 유혜은 기자 euna@

대학생 특독 튀는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문제 해결 SK행복나눔재단 사회혁신가 양성 동아리 ‘루키’ 성과발표회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 동아리 ‘루키(Lookie)’가 18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2019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전국 20개 대학에서 활동 중인 루키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 동아리이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전국 15개 동아리에서 개발한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한 해 동안 창출한 소셜 임팩트를 검증했다.

대학생, 지도 교수, 사회혁신 전문가 등 2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루키들은 실제 임팩트 투자 피칭 방식을 차용한 전문적인 발표를 진행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식 기술 적용 초경량 IoT 점자 프린터기 개발, 미세먼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저소음용 공기청정기 개발, 한국 전통 차(Tea) 문화 보존을 위한 영세다원 브랜드 지원 등 대학생만의 특독 튀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돋보였다.



18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루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행복나눔재단

SK행복나눔재단은 기업가 정신, 임팩트,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역량 등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를 진행해 5개 우수 동아리를 선정,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변효선 기자 hsbun@

에쓰오일, 기초과학 연구자 20명에 2억7500만원 지원

올해의 우수학위논문 시상식

에쓰오일이 설립한 공익재단 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은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제8회 에쓰오일 우수학위 논문상’ 시상식을 열고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5개 기초과학 분야에서 선정된 젊은 과학자 10명과 지도교수 10명에게 연구지원금 2억7500만 원을 전달했다.

대상에는 윤상균 서울대 박사(수학), 김준기 서울대 박사(물리학), 사영진 UNIST 박사(화학), 이주호 서울대병원

박사(생물학), 최명제 연세대 박사(지구과학)를 선정, 각 4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우수상에는 박정태 서울대 박사(수학), 안성준 성균관대 박사(물리학), 정인섭 성균관대 박사(화학), 김동하 서울대 박사(생물학), 박훈영 서울대 박사(지구과학)를 선정해 각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학문적 열정과 인내심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들 젊은 과학자들이야말로 한국을 이끌어 갈 주역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선진영(맨 아랫쪽 오른쪽 네 번째) 에쓰오일 전무, 오명(다섯 번째) 에쓰오일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21일 우수학위 논문 시상식에서 연구지원금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에쓰오일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 임용> △능력개발이사 김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총괄 사장 겸 편집인·인쇄인 김광현 △아주경제 △총괄부국장 겸 산업부장 김중수 △경제부 부장직대배군득 △정치사회부 정치행정팀장 부장 주진 △정치사회부 경제법률팀장 조현미 △정치사회부 국회팀장 김봉철 △정치사회부 법조팀장 장승주 △데일리동방 △대표·아주일보 대표 겸 총편집 양규현 △경제산업부장 김태균 △데일리동방 기업문화부장직대 김부원 △문화관광부장 홍준성

◆업다운뉴스 △경제산업부장 고훈근

△경제산업부 1팀장 백성요

부음

▲강수권 씨 별세, 강훈·관태·경숙 씨 부친상, 조동진(에쓰오일 상무) 씨 장인상, 신영조(멀티 캠퍼스) 씨 시부상 = 21일,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병원 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33-744-3969

▲한경자 씨 별세, 이용갑(한국GM 부사장)·용재(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용진(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수사신부)·용권(전주교 의정부교구 신부)·마리아·용범 씨 모친상, 김윤범(CJ푸드빌 법무팀장)씨 장모상 = 2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9시, 02-2258-5946

▲임병일 씨 별세, 임윤철(기술과가치 대표)·윤목(연세대 학부대학장) 씨 부친상 =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2-2227-7500

▲한옥례 씨 별세, 안상태(개인사업)·남태(개인사업) 씨 모친상, 강주남(디지털타임스 산업부장) 씨 장모상 = 20일, 강화 서해장례문화원 특3호실, 발인 22일 오전 11시, 032-933-4463~4

▲문성득(전 부경대 공대학장) 씨 별세, 문호건(KT 선임연구원)·예선(미국 컬럼비아대 병원 수석연구원) 씨 부친상, 박영선(전 대우증권 뉴욕법인장) 씨 장인상 = 20일, 부산시 대동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 051-550-9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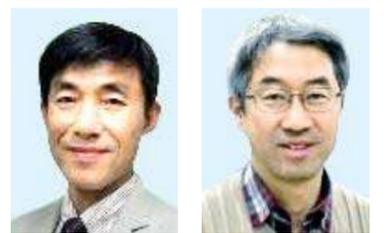
시몬스침대 CFO에 이정호 부사장

시몬스침대가 최고 재무책임자(CFO)에 이정호 부사장을 선임했다.



시몬스는 작년 7월 재무 전문가로 이 부사장을 영입했으며, 14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한국공인회계사다.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및 내부 감사 담당을 시작으로 모엣헤네시코리아, 에르메네집로제냐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등에서 파이낸스 플래닝&컨트롤매니저를 역임해 경영, 재무, 회계 업무에 정통하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공학한림원 일진상 장석인·박진우 해동상 수상자엔 주원종·김찬중



한국공학한림원은 제15회 일진상 수상자로 장석인(61·위 왼쪽 사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기술정책 기여 부문)과 박진우(67·위 오른쪽) 서울대 명예교수(산학협력 증진 부문)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학한림원은 또 제14회 해동상 수상자로는 주원종(64·아래 왼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공학교육혁신 부문)와 김찬중(61·아래 오른쪽)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공학기술문화혁신 부문)을 선정했다.

정승호의 키워드

거인의 어깨



언론인 전 코스카저널 논설주간

천재들에게도 경험이 필요했다



영국 2파운드 동전에 새겨진 '거인의 어깨'.

경험은 연륜이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경험이다. ...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분야에서 경험자, 나이 든 자들이 퇴출되고 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제일 많다. 쫓아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어떤 경험을 쌓게 될까.

영국의 2파운드짜리 동전 테두리에는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영국이 우리 돈 약 3000원에 맞먹는 이 동전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를 새겨놓은 것은 자기 나라 출신으로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뉴턴(1642~1727)과 무관하지 않다. 뉴턴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물리학적 발견을 치하하자 "내가 남보다 더 잘 보고 더 멀리 봤다면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앞선 사람들의 발견(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의 발견이 가능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경험과 전통을 중시해온 영국 사람들은 뉴턴의 이 말을 동전에 새겨 일상생활의 모토로 삼아왔다. '모르면 경험에 물어라! 전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런 뜻을 매일 쓰던 동전에 새겨 경험과 전통을 이어온 거다. 영국에서 '경험주의 철학'이 괜히 발전했겠나. 데이비드 흄과 더불어 경험주의 철학자 명단 맨 앞줄에 등장하는 존 로크(1632~1704)는 뉴턴과 친밀한 사이였다.

경험을 새로운 생각, 새로운 눈뜸을 만

들어주는 원천임을 전파한 사람은 물론 뉴턴만이 아니고 영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뉴턴보다 약 100년 뒤 독일에서 태어나 뉴턴의 광학이론에 시비를 걸기도 했던 '인류 최고의 천재' 괴테(1749~1832)는 아예 '천재=독창성'이라는 공식을 무시했다. 괴테는 "에너지와 힘과 의욕을 제외한다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 무엇이 있었냐"고 말했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욕, 이를 뒷받침할 힘과 에너지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자신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역시 독일 태생으로 괴테에 버금가는 천재였던 아인슈타인(1879~1955)도 "새로운 아이디어는 갑자기,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방식으로 찾아온다. 하지만 직관은 이전의 지적 경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뉴턴과 괴테에 호응했다.

현대에 와서는 이탈리아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자신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거인의 어깨'를 인용했고, 구글은 학술 검색사이트(scholar.google.com)의 모토를 'Standing on the Giant's shoulder'라고 못 박아 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글로, 연설로 써먹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라는 번역서가 2003년에 나온 후 3000건 이상이 검색된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에 이어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라는 토종 책도 나왔다. 처세술 비슷한 걸 가르치는 책이다. 경험이 중요하더라도 실생활에서는 경험이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책과 글이 나왔을 거다. (나도 이 글이 두 번째다!)

아니면 아직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일지도 모르겠다. 경험은 연륜이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경험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험을 설명한 말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쓴 쿤데라(1929-)의 것이 귀에 쏙 들어온다.

쿤데라는 "출생에서 죽음 사이를 잇는 선위에 관측소를 세운다면 각각의 관측소에서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의 태도도 변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의 나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쿤데라가 '나이'라고 쓴 자리에 '경험'이라고 써도 뜻은 통한다. 하지만 쿤데라도 이 나라에 오면 곧대 대접을 받을 거다. 나이 대접하려면 곧바로 곧대라고 하는 곳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분야에서 경험자, 나이 든 자들이 퇴출되고 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제일 많다. 쫓아내는 사람들, 천재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그들은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어떤 경험을 쌓게 될까.

('거인의 어깨'는 뉴턴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다. 12세기 중반 '난장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고 한 '샤르트르의 베르나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저작권자다. 뉴턴은 유럽 지식인 사회를 떠돌던 이 말을 자기 것으로 '선점'해낸 것이다. 그래서인지 영국 2파운드 동전에 '뉴턴'이라는 글자는 없다.)



조에린의 벤처칼럼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경영학과 교수

벤처가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액셀러레이터) 지원에도 큰 액수를 배정하고 있으며, 연기금도 벤처 투자 금액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젠 사업 지원금을 받은 후 성과를 못 내고 벤처가 실패하여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면' 지원된 사업비가 전액 면제되는 상황이다. 접근 가능한 펀딩의 종류와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실패 부담이 솥통이 뜨여 벤처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시도가 커지고, 실패한다 해도 채무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는 정의는 모럴 해저드의 근본적인 문제인 벤처의 숨겨진 행위(hidden action)에 의한 정부기관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피하기에는 너무나 모호하다. 펀딩과 연구비만 받고 성과는 내놓지 않는 종이 기업들을 속아내고 통제하기에는 너무 관대한 기준이라 하겠다. 더 적절한 기준은 '벤처의 윤리에 어긋난 사업 수행'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벤처 열기와 함께 적지 않은 유동자금이 스타트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인터넷 붐과 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신기술, 또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별 마땅한 수익이나 장기 지속적 수익모델 없이도 엔젤투자자나 창업 자금을 유치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거대한 투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벤처가 그린 기대수익만으로 주가 지속이나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배운 시장은 펀딩의 엔진을 급속히 식혔고, 많은 벤처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도산으로 치달았다. 2000년 초 경제 상황을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사업에 충실하여 수익을 내려는 노력보다는 논문 유동자금을 끌어들이기에 급급하고, 부당하고 부적절한 금전 지출과 지급 행위, 분식 회계와 기타 불법적 재무관리 등 숨겨진 행위로

야기된 경우가 많았다.

2000년 인터넷 버블이 꺼진 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도덕적 해이로 유발되는 벤처 생태계의 위험 관리가 그리 많이 진화되었다고 보아진 않는다. 특히 기업의 최대주주로 있는 창업자가 투자 자금 운용과 관리에 있어 비도덕적 행위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강조했듯이 벤처는 더욱더 윤리적·도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창업자는 자신이 일구고 있는 벤처가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 창업자와 그 경영팀은, 자신들의 벤처를 믿고 자금을 맡긴 사람들과 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전한 기업 윤리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책임 있는 자금 운용으로 신뢰를 키워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일구어 놓은 벤처 생태계와 시장에서,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냉소와 버림을 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해저드는 원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마땅한 위험관리 없이 고객의 위탁금을 함부로 운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하여 벤처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기업이 재무적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상황, 기업 운영을 위해 받은 자금의 손실을 정부(또는 누군가가)가 보전해 줄 것이라는 생각, 또는 다른 이유의 지나친 자신감으로 느슨한 윤리와 적절한 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 벤처 운영과 자금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부가 벤처를 청년 취업 문제의 돌파구로 정의한 후, 매년 예산에서 벤처 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를 점점 늘려왔다. 창업 성장 자금은 물론 창업 보육기관

이달 초 막을 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의 예고편이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로올은 세계 최초로 접히는 스마트폰 '플렉스파이(FlexPai)'를 선보였다. 완성도에 대한 갑론을박은 차치하더라도 전시장에 해당 제품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만큼 폴더블폰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이었다.

누가 먼저 폴더블폰을 선보일 것인가는 스마트폰 제조업계의 큰 관심사였다. 화웨이와 삼성은 글로벌 1위를 향한 야심을 드러내며,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갤럭시노트9' 언팩 기자간담회에서 "폴더블폰에서 세계 최초로

기자수첩



권태성 산업부/tskwon@

폴더블폰, 혁신적 '폼 팩터' 되려면

는 것(타이틀)을 굳이 뺐다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LG전자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미국 특허청에 폴더블폰 관련 특허를 신청하며, 발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결국, 폴더블폰 최초 타이틀은 중국이 가져갔다. 그것도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닌

디스플레이 업체였다. 사실 국내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폴더블폰을 먼저 공개할 수 있었다. 중국에 비해 기술이 뒤쳐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폴더블폰을 언제 내놓을 것인가보다는 폴더블폰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했다. 폴더블폰의 외형은 분명 혁신적이지만, 폴더블폰

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저 신기한 디바이스에 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폴더블폰은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혁신적 폼 팩터(form factor)가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스마트폰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단순히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것 이상의 차별 포인트를 보여줘야 소비자들은 환호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저 '신기한 스마트폰'에 그칠지 모른다. 혁신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지만, 선택받지 못한 혁신은 그저 서프라이즈에 그친다. '무엇을 폴더블폰에 담을 것인가'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프란시스 베이컨 명언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경멸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찬양하며, 현명한 사람은 학문을 이용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모비명도 남긴 그는 영국 고전경험론의 창시자. 데카르트와 더불어 근세 철학의 비조(鼻祖)로 불린다. 세상사에 밝았던 그가 쓴 '수상록'은 불후의 경제서이다. 그는 운이 없었던지 닭을 박제로 만든 뒤 그 속에 열음을 채워 넣고 온도와 부패에 관한 실험에 몰두하다 폐렴으로 숨졌다. 오늘이 그의 생일. 1561~1626.

☆ 고사성어 /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 논어(論語) 선진편(先進篇)의 글.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제자인 자장(子張)과 자하(子夏) 중에 누가 더 현명하냐고 물었다. 공자의 대답. "자장은 아무래도 매사에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럼 지나친 것이 낫단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공자는 "그렇지 않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不及)."

☆ 시사상식 / 바이백(Buy-back)

무엇을 팔았다가 다시 되사들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정부가 '국채 조기 상환'에 나서면 부채가 줄어들고,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자기 회사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을 때,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기 자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 유머 / 신의 판결

총알택시 운전사와 목사가 한 날 한 시에 죽었다. 운전사는 천국행, 목사는 저승대기로 판결 났다. 목사가 투덜대자 신의 보충 설명.

"네 설교 때 신도들 모두 졸았지만, 운전사가 차 몰 때 모두 기도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현 |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 대표전화 (02)799-2600 | 팩스 (02)799-1003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 구독·배달 (02)799-2684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한일 간 레이더 갈등 키우는 아베정권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자위대기에 공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쏘았다고 일본이 한국 측에 항의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실무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레이더를 쏘는지를 포함하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태세이지만, 한일 간에는 현재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사태 타개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다.

원래 레이더 문제는 한일 양쪽의 실무자 간 처리 방침이었으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동영상 공개를 지시하면서 사태는 악화하였다.

아베 총리로서는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한국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일본 국민들과 세계에 심어주고 싶은 모양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제징용자 판결 등도 모두 한국 측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인식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19일 방문지인 미국 하와이에서 “레이더 문제에서 아직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 측과 어떻게 협의를 해나갈지 잘 생각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대북 정책 때문에 한미일 3국의 연대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일본 측은 지난해 12월 20일 노토(能登)반도에서 해상자위대의 P1-초계기가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한국 해군 구축함이 쏜 화기관제 레이더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측은 이런 레이더 사용을 전면 부인하며 조난한 북한 선박 구조를 위한 탐색레이더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해상자위대기의 비행 상태에 관해서도 쌍방의 주장이 대립한다. 일본 측은 충분한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측은 해상자위대기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위협적 저공비행을 했다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일본 측은 증명을 위해 지난해 말 자위대기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일본 자위대원들이 대화하는 일본어가 들리고 그것이 자막으로도 나온다. 레이더를 맞았다고 하면서도 한 자위대원이 “(광개토대왕함의) 포는 이쪽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이 말은 광개토대왕함이 쏜 레이더는 공격용 화기관제 레이더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격용 레이더였다면 포가 함께 일본 초계기를 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에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베 총리의 지시로 일본 방위성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4일 2차 한일 실무회담에서 한국 측이 해상자위대기가 수집한 레이더의 전파정보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일본 측이 광개토대왕함의 모든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요구했는데 일본 측의 과도한 요구에 한국 측이 무례하다고 이를 거부했다. 사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조만간 레이더를 맞았을 때 초계기 내에서 기록한 전파신호 소리를 증거로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측이 확실한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사태는 수습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한일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광범하는 자세이며, 이에 한 일본 방위성 간부는 “미국은 중재해도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레이더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에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의 판결도 한일 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이 세계적인 사법 판단의 흐름이고, 1991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그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말한 내용에 모순이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23일 스위스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기회에 어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설

새해 수출 대폭 감소, 한국 경제 뿔로 버티나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새해 들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1월 20일까지 수출은 25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6%나 감소했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해온 대표 상품인 반도체가 추락했고, 최대 시장 중국에 대한 수출이 22.5% 줄어든 탓이다.

이 기간 중 반도체 수출은 42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8.8%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석유제품과 선박 수출도 각각 -24.0%, -40.5%를 기록했다. 승용차가 29.0%, 무선통신기기도 8.1% 늘었으나 워낙 수출비중이 큰 반도체의 부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분간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상황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들어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62.5%나 줄어든 것이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우리 수출은 작년 12월 1.2%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1월에 이어, 설 연휴가 낀 2월 수출도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이 쉽지 않다. 한국 수출이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수출 전선의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질 조짐이다. 중국 경제 성장세가 확 꺾인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부정적인 변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력 시장의 동반 경기 하강 추세 또한 뚜렷하다. 예나 지금

이나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와 투자, 고용 등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출 엔진마저 꺼지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성장이 후퇴하면서 경기 회복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수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21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긴급히 열고 총력 수출지원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수출마케팅 예산 조기 집행,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흥 강화, 통상분쟁과 관련한 업계 애로 해결 등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늘 되풀이되는 교과서적인 대응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활력 회복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주력 산업의 기술·가격·품질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시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수출 한국’을 지켜가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사활적인 과제이다. 획기적인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산업구조 재편에 경제정책을 집중해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문선영의 썰



자본시장1부 차장

“OOO종목에 M&A(인수합병) 이슈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얼마 전 한 지인이 대뜸 전화해 쏟아낸 질문이다. 자본시장부(증권) 기자라는 이유로 종종 주위 사람들에게 투자와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된다. 보통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해 주지만, 무작정 종목을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은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일개 기자가 답해 줄 수 있는 범위도 아니거니와 이런 질문을 하는 투자자들이 묻는 종목들 대다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가는 500원도 채 안 됐으며 재무구조는 엉망이었다.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기 위한 핑수를 부리다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되기도 했다. 출입기자로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투자 자체를 고려해서는

제대로 투자합시다

안 되는 종목이기에 당연히 투자를 만류했다. 하지만 지인은 “아는 사람에게 들은 확실한 정보가 있다. OO기업과 M&A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투자를 강행했다. 현재 이 종목은 거래정지 중이다. 물론 지인의 투자 성적은 ‘썩박’이었다.

의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허위 정보에 속아 ‘불나방’처럼 투자에 뛰어들다. 그런데 이처럼 허위 정보보다도 종목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최근 발생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인 파인텍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무려 400여 일간 굴뚝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게 무슨 일일까. 파인텍은 그런 사실이 없다. 알아보니 코스닥 상장사인 파인텍은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인데, 노사 합의를 이룬 파인텍은 섬유제조업체였다. 이름만 같은 전혀 다른 회사였던 것

이다. 문제는 무려 1년간이나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사실이다.

파인텍 노사 분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는 등락을 오갔다. 심지어 코스닥 상장사 파인텍은 회사 홈페이지에도 ‘노사 합의한 파인텍과는 전혀 다른 회사’라고 공지까지 올렸지만, 투자자들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투자는 이어졌다.

1000원이든, 1억 원든 내 돈을 들여 투자하는 기업이 무엇을 하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자에 나서면서 기업 정보나 최근 이슈 등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창한 이슈가 없어도 건전한 사업 기반을 갖고 꾸준히 실적 개선을 이루는 기업이라면 언젠가 주가는 오른다. 다만 이런 종목들을 아는 지인이 혹은 시장의 소문이 알려주지 않는다.

건전한 기업 투자가 건전한 시장 조성에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moon@



비위(脾胃)치레

필자는 어린 시절에 수줍음이 많아서 쉽게 남 앞에 나서지 못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나를 두고 비위치레를 못한다고 나무라시곤 하셨다. 지금도 자신이 있는 분야에 대한 강이나 강연 외에는 남 앞에서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이다.

비위치레는 ‘비위’와 ‘치레’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비위는 ‘脾胃’라고 쓰며 각 글자는 ‘지라 비’, ‘밥통 위’라고 훈독한다. 소화기관인 밥통, 즉 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지만 지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지라는 척추동물이 가진 림프기관의 하나로서 위의 왼쪽이나 뒤쪽에 자리하고 있다. 림프기관은 병원체나 종양세포 등을 인지하고 죽임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위에 붙어 있는 이 지라는 음식을 대했을 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여 위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비위가 튼튼한 사람은 음식을 보는 순간 뭐든지 먹고 싶다는 생

각을 하지만, 비위가 약한 사람은 모양이나 냄새가 조금만 이상해도 ‘비위가 확 상하여’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기서 의미가 확대되어 비위는 “아니 짠고 싫은 일을 견디어 내는 힘”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치레’는 ‘겉으로 꾸미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비위치레는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일이거나 후천적으로 당하는 아니짠고 싫은 일, 즉 비위 상하는 일을 잘 견디는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처럼 결핍하면 주눅이 들 정도로 비위치레를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뻔뻔스러운 정도로 비위치레를 잘하여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서도 전혀 과오가 없는 양 뻔뻔스럽기 그 지없이 때만 되면 국회의원, 혹은 지자체장, 혹은 대표 등을 하겠다고 얼굴을 내미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 낯살 좋은 비위치레에 비위가 확 상하곤 한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햇살을 나눠 웃음을 키웁니다

태양에너지를 나누는 해피선샤인 캠페인

한화는 2011년부터 전국 254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절약된 에너지 비용은 도서관, 공부방 등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다양한 혜택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빛을 선물하는 햇살처럼
함께 자라는 내일을 **해피선샤인**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붕이 햇살로
에너지를 만든대요

밤에도 햇빛이
켜진대요!



한화 해피선샤인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주택 등
전국 254여 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중국 닝샤 사막에 태양광 양묘장을 기증,
26만 그루의 나무로 사막방지화 숲 조성

중국 빈곤지역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한 한화-희망공정 해피선샤인